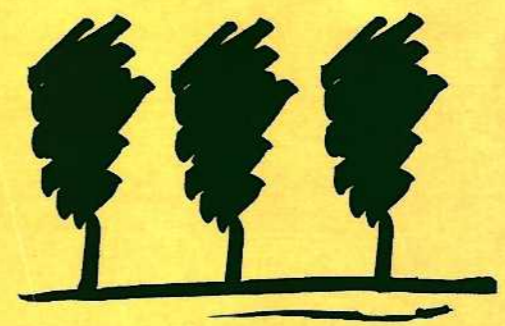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7

인권하루소식

합본Ⅶ호
(96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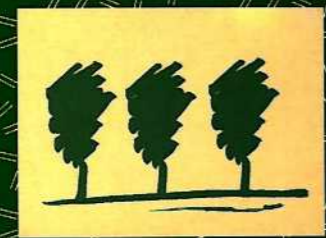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17권후 96) 호파출판

인권정보자료실
R1.1.7

민권운동사랑방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VII

(675- 796호)

1997. 3.

인권운동사랑방

차 례

머리글	96년 하반기 인권상황 개괄 · 인권운동사랑방	/27
연세대 사태	박 래 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40
부 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7호 색인	/325

제675호(96.7.2, 화) /51

- 1면 · “동티모르 독립과 연대에 관심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인권협 초청으로 방한
 · 전해투, 반복되는 LG해고자 연행 · 석방에 항의하며 노동부 방문
 · 전학련 사건 공개질의에 청와대 무반응
- 2면 · “아태지역의 국제지원 촉구”, 호주 시드니에서 동티모르 국제회의 열려

제676호(96.7.3, 수) /53

- 1면 ·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우 보장”,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특별법 제정 추진
 · UN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 일본정부의 위안부 위한 기금 지급 철회
 · 노진추 회원 불법 연행
- 2면 · <자료> AI 보고서 96 남한편① - 국보법 개정과 표현 ·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AI, 인턴 모집 26일까지 신청

제677호(96.7.4, 목) /55

- 1면 · 민주노총, 10명중 3명만 산재 처리-산재율 정부발표보다 3.5배 높아
 · 민변, 최대통령 구인 통해서라도 진실 밝힐 것 촉구
 · 민주노총, 정리해고제등 강행시 총파업 불사 천명
 · <인터뷰>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산토스 씨 “동티모르에선 가족간에도 신뢰할 수 없다”
- 2면 · 세계의 인권④ -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제678호(96.7.5, 금) /57

- 1면 · 고문후유증 앓고 있는 장기수 유정식 씨 석방촉구 위해 일본 유정식회 입국
 · 남북합의 이행촉구, 종교인 전국순례 마감
- 2면 ·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적어”

- 전학투런 또 1명, 국보법 위반 연행
- 전혜투 후원회 모집
- 복지합의 불이행, 대우해고자 상경투쟁

제679호(96.7.6, 토)

/59

- 1면 · 민주노총,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투쟁 밝혀
 - 이상희 할머니 집유 판결,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 동티모르 모임 “동티모르에도 위안부있다”고 밝혀
- 2면 · 합법 취업자 5.8%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민변등, “노동법 개악 의혹”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제680호(96.7.9, 화)

/61

- 1면 ·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여학생 왜곡 보도는 “남성중심의 성의식”이라고 언론 비난
- 2면 · 21세기연합 12명 구속, 공안칼날 ‘진보’ 단체 겨냥
 - 중부지역당 사건 구속, “과거 들추기 여전”
 - 양혜우씨 보석 석방

제681호(96.7.10, 수)

/63

- 1면 · 신양중 대책위, 성폭력 사례발표 기자회견 “학교내 성폭력 이제 드리낼 때”
 -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례> - 60대 교사가 10살 제자 지속적인 성추행
 - 나눔의 집 여름캠프
- 2면 · 3년전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마창의장 구속
 - 세계주거회의 보고대회, 국가행동계획에 민간참여 보장해야
 - <자료> AI 보고서 '96 북한편② -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 재심요구

제682호(96.7.11, 목)

/65

- 1면 · 안산 계양전기 집단폭력 사태, 회사측 “제3자 개입에 항의했을 뿐”
 - 광주교도소 양심수, 공안탄압 중지 단식
 - 현충련, 정리해고제 반대하며 경총 항의방문
- 2면 · AI 한국지부, 전국교육대회 가져, 한상범 교수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강의
 -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 김해성 목사 재판, 교계원로 석방촉구

제683호(96.7.12, 금)

/67

- 1면 · 청년운동단체 비상,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13명 또 연행
 - 김해성 목사 공판 참관기, 징역 2년 구형
 - 독립영화 거리 상영, 매주 토요일 명동성당

- 단병호 씨 만기출소, 민주노총 15일 환영회
- 2면 ·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②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제684호(96.7.13, 토)

/69

- 1면 ·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박충렬 씨 사건일지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불법연행·구금
- 2면 · CIA 정보원, 암살·고문 자행했다고 미 백악관 보고서 밝혀
 -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기금마련
 - 김 추기경 청와대에 박노해 씨 석방 탄원

제685호(96.7.16, 화)

/71

- 1면 ·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
 -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2면 ·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껌껌죄 적용해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제686호(96.7.18, 목)

/73

- 1면 · “재일교포 정치범 석방하라” 일본의원 1백30명, 장기수 석방 서명
 -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탄압, 투쟁으로 대응” 애청, 명동성당서 농성
- 2면 ·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제687호(96.7.19, 금)

/75

- 1면 · 김목사 병보석 석방, 3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 마감
 - “항의방문 마치고 가려는데 연행”, 경찰측 신고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 인권탄압 저지, 천주교 대책위 18일 발족
 -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 2면 · <자료> AI 보고서 '96 북한편 - 벌목공 강제소환,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제688호(96.7.20, 토)

/77

- 1면 · “법무부! 야비한 술책 그만둬라”, 친목단체인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씌워
 - <현장스캐치> - 세계인권포스터전, “펜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라”
 - 체험! 삶의 현장, 청소년 열린학교
- 2면 · “안기부, 22일 경 큰 사건 터뜨린다” 간수 교수 변호인들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 성폭력 사건 흥미보다 대책마련을!

제689호(96.7.23, 화)

/79

- 1면 · 간수 교수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 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가정폭력에 경찰의 적극 개입 필요, "경찰, 가정에서 해결해라"
 - 정대협, 기금반대 서한
 -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
- 2면 · <자료요약>-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 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제690호(96.7.24, 수)

/81

- 1면 · 원진, 3백19명 직업병 추가 판정 보상금확보 · 전문병원 건립 시급
 - 전국연합, 북한수재민돕기 쌀 '더위에 부패 위험'으로 적십자사 전달
 - 동티모르 독립위한 모임 가을 창립대회
- 2면 ·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개폐문제 ② 국보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제691호(96.7.25, 목)

/83

- 1면 · 복지합의서 이행 대신 폭력테러, 대우그룹 해고자 17명 업무방해로 고소
 - 대우정밀 해고자복지 투쟁 일지(89년부터 8년간 투쟁, 조수원 씨 95년말 자살)
 - 김해성 목사등 선고 공판, 징역 2년 구형
- 2면 · "누구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노개위 토론회 참석노동자 61명 연행
 - 잠안재우고 강압수사, 범민족대회 관련 이승환 씨 검찰송치

제692호(96.7.26, 금)

/85

- 1면 · '장애인 먼저' 보다 '장애인 소외' 우려, 4월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 발족
 - 김해성 목사 징역 8월에 집유 1년 선고
 - 인권센터 정책간담회 '한국인권운동의 방향'
- 2면 · "우드로교민 주거권 인정", 인권협 항의서한 일본대사관에 전달
 - 정보통신 주권 수호, PCS 국정조사 촉구
 - 핵발전소 반대투쟁, 광주 사회단체 집결

제693호(96.7.27, 토)

/87

- 1면 · 흥보교장, 경찰 투입시 진두지휘, 무법천지 경원대 14명 학생잡기 혈안
 - "민주주의하에서 맑스주의 인정 못해", 한국노동청년연대 5명 집유선고
 - 96 민족평화선언, 각계 인사 106인 참여
- 2면 · <대우정밀 해고자들이 원직복직을 원하는 까닭>
 - '상급자 명령 불복종시 강제 출국', 중국인 연수생 8명 기독교회관 농성

제694호(96.7.30, 화)

/89

- 1면 · 민가협,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핵발전소 건설반대자 실행선고에 대해 독일 환경단체 석방 촉구

-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 2면 · "조직표 갖고 추궁했다", 상지대 출신 7명 국보법 연행
 - 여성유치원성폭행 대책위, 어린이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제695호(96.7.31, 수)

/91

- 1면 · 말지 판매금지 이유를 밝혀라, 전국서점서 보안과 형사들 판매금지 협박
 -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63.6% 을 하반기 노동법 개정 예상
 - 전국연합 자통위원장 조성우 씨 구속
- 2,3면 · 96년 7월 총목차(675-695호)

제696호(96.8.1, 목)

/97

- 1면 · "사면정국은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략 우려
 -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에방지침서 제작
- 2면 · 대립노조 회사 노조운영 개입에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
 -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제697호(96.8.2, 금)

/99

- 1면 ·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 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시사뉴스 또 구속
- 2,3면 ·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제노사이드 조약

제698호(96.8.3, 토)

/102

- 1면 ·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인권단체들 한국정부 항의도 촉구
 - UN 인권소위, 5·18 등 불처벌 문제다뤄
 - 통일운동단체, 안기부 방문해 통일운동 보장 촉구
- 2면 · 한권의 책-『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준비위원회 발족

제699호(96.8.6, 화)

/104

- 1면 · 홍성담 씨 한달 남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참가 예정
 - 공포의 1시간 30분, 사복경찰 50여 명 이유없이 쫓아와
 - 불교인권위 진관 승려 원폭피해 행사 참여
- 2면 · '검찰, 학살자에 이유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기독교대책본부, UN 인권소위에 한국내 외노 인권탄압 폭로

제700호(96.8.7, 수)

/106

- 1면 ·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등 8·15행사 다양

- 불교인권위, 범민족대회 보장촉구
- 2면 · 정대협,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하며 일본 순회집회
 -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국보법 철폐 공동준비
 - 각계인사 109인, 반민주 악법개폐 촉구 선언
 - 언론폭력에 분노한 어느 일본 주부 이야기, 선동렬 투수 부진은 한국 '욕의 문화' 탓?

제701호(96.8.8, 목) /108

- 1면 · “국보법은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국제인권소식> 수출용 전투기 부순 여성평화운동가 무죄선고
- 2면 · 한전, 영광핵발전소 2호기 방사능 방출 한 달만에 발표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원폭피해자 대책촉구
 - 『이동약자 위한 기본법』 토론회

제702호(96.8.9, 금) /110

- 1면 · 홍성담 씨 출국불허에 영국언론 대서특필, 한국대사관에 영국민들의 항의 잇따라
 - 전국 여대협, 생활안전지원특별법 강화 국회청원
 -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간수교수 변호인 접견권보장 요구
- 2면 ·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

제703호(96.8.10, 토) /112

- 1면 · 장기수 김인서 씨 원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 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
 - 미행·도청장치 발견, 범민련 간부 자택
- 2면 · 성폭력대책위, 성폭력예방교육등 종합대책마련 촉구서명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접수
 - 대전충남겨레모임, 양심수 석방 행사
 - ‘시위용품 신고규정없다’며 민변·민가협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서한
 - “양심수가 사람이름인가요?”, 명동에서 확인한 인권의 사각지대

제704호(96.8.13, 화) /114

- 1면 · 민노총 투쟁본부 체계로 총력투쟁,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없는 노동법개정 거부
 - ‘자식의 뜻으로 다시 살고자 나선 가족들’, 유가협 창립 10주년 행사와 수련회
- 2면 · 정부 통일축전 폭력대응, 전경 투석으로 학생 증상
 - 정의구현사제단, 법적·인적 청산요구 광복절 성명발표
 - 여성노동자회, 여성직업훈련생 취업 사례 9월10일까지 수집

제705호(96.8.14, 수) /116

- 1면 ·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여연, “일본 사죄” 촉구하는 8·15 성명발표

- 2면 ·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한 현준희 씨 1차공판
 - 성폭력대책위, 8월말 성폭력 추방대회 각 단체 참여 요망
 - 대구그룹, 해고자 집회 방해하기 위해 김우중 회장집앞 등 한 달 동안 집회신고

제706호(96.8.16, 금) /118

- 1면 · 전쟁치르듯 집회진압, 학생들 통일운동 전개 배경 침묵
 -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2면 ·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대폭축소 의결
 - 민족회의, 96평화통일선언 채택
 - 쌀수입 반대, 농민들 대대적 투쟁결의

제707호(96.8.17, 토) /120

- 1면 · 제2의 건대 사태우려, 자진해산 요구목살...경찰 검거작전 돌입
 - 16일 20:10시 현재, 이한열 추모비 앞을 가로막은 경찰병력
- 2면 · 구속자 가족 사원아파트서 내몰아, 한진중공업 가족 상경투쟁
 - 경실련 등 시민단체, 전·노 사면위한 전주곡이라며 특별 사면조치 항의
 - 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정신대·고용 주요의제
 - 15일 대전교도소 장기수 이현치·김태홍 씨 석방

제708호(96.8.20, 화) /122

- 1면 · 공권력 행사 인간존엄성 보장선에서, 광기어린 언론 반인권적 간접살인 부추겨
 - 구속자 상황판
- 2면 · 생리대 전달 차단, 여연 등 “안전귀가 보장”
 - 미국 민주당 초청으로 권영길 위원장 출국
 - 연세대 사태에 대한 재야출신 국회의원 발원

제709호(96.8.21, 수) /124

- 1면 · ‘정부 연대사태 평화해결 의지 없었다’, 시민·사회단체 21일 과잉진압 규탄대회
 - 폭력적·반이성적 정부 비판, 학계·종교계 등 입장 발표
 - 민가협 간사 연행, 연회동서 학부모 돕던 중
- 2면 · 원인규명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
 -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 고용평등추진본부 결산, 승진 성차별 가장 많아
 - 고려대 서창캠퍼스, 군병력 진입으로 긴장, “5공 정권 되살아났는가?”

제710호(96.8.22, 목) /126

- 1면 · 연행자 확인전화 ‘182’ 검거에 역이용, 경찰 부상자 치료뒀전 사법처리 혈안
 -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 조사과정 부당대우 금지 요청, AI 한총련 사태 인권보장 촉구
 -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
- 2면 ·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 명 결집
· 아시아자동차 노조 위원장 등 2명 구속
· <연세대 사태 부상자 소식> 실명 4명, 두 개골 합몰, 뇌사, 뇌출혈...

제711호(96.8.23, 금) /128

- 1면 ·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전국연합, 김 이경 죽음 애도 성명
· 올해 인권상황 조사위해 AI 조사단 파견
- 2면 · <독자투고> 전두환 씨의 사형선고를 반대하며, 오완호(AI 한국지부 사무국장)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제712호(96.8.24, 토) /130

- 1면 · 유인물 배포 권총으로 막아, 성남시민에 총기위협 · 항의자 연행
· 이종삼중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
- 2면 · 연대 사태 학생 인권침해 상상 초월, 구타 · 성희롱부터 조작에 의한 구속까지
· 아시아 독립비디오 한마당, 25-26일 서울대 호암관

제713호(96.8.27, 화) /132

- 1면 ·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 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여성의 전화, 26기 여성상담 교육
· 외노협 28일부터 이주노동자 워크샵
- 2면 ·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아시아여성기금 철회 · 국가배상 요구
· 구속자 상황판

제714호(96.8.28, 수) /134

- 1면 ·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 2면 · 복직대신 경호원 이용해 집단폭행, 대우해고노동자 사당의원 입원
· 매춘 여성 1백20여 만명, 여성민우회 대책시급 촉구
· 참여사회아카데미, 국제뉴스분석 강좌 진행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715호(96.8.29, 목) /136

- 1면 ·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노개워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토론회
· 참여사회아카데미 개강

- 2면 ·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썹크 탱크
·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받습니다
- 3면 ·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 1503호 절차란?

제716호(96.8.30, 금) /139

- 1면 ·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2면 · 전국연합, ‘문민독재’ 우려하며 공안통치 기도 중단 촉구
· 한총련, 연대사태 인권피해 조사해 백서발간 예정
· 여연,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건의문 발송
· <자료> 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제717호(96.8.31, 토) /141

- 1면 · 연세대 사태 경찰 인권유린 속속 드러나
2,3면 · 8월 총목차(696호-717호)

제718호(96.9.3, 화) /147

- 1면 ·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초 개최
· “정권안위에만 부심”, 정의구현사제단 시국성명
· “노조와해 맞서 싸울터” 현중간부 단식농성
- 2면 · 교환원 ‘정년차별인정’에 항의집회
· 폭행 지시·방조 혐의로 대우해고자 김우중회장 고소
- 3면 · <자료> 제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 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제719호(96.9.4, 수) /150

- 1면 · 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서초구 반포 2동 53세대 생존권 위협
· 또 다른 조직사건 부산의대 총학간부 11명 연행
- 2면 · <자료> 제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 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②

제720호(96.9.5, 목) /152

- 1면 ·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중 하나” 시국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 국제 비정부단체에 중재요청 계획,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씨 송환돼야
- 2면 ·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강력 반발
· 인터뷰: 통신연대 김영식 대표 “사용자 자체정화기능 믿어야”
· 현대판 연좌제,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제721호(96.9.6, 금) /154

- 1면 · 1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노사관계법 개정방향 공동선언문 발표

- '공개조직 활동' 7명 연행, 서울대 애국청년선봉대
 - AI, 성명서 발표 "한총련 사태 노동운동계 확산 우려"
- 2면 · 세계의 인권 ㉞-세계의 난민

제722호(96.9.7, 토) /156

- 1면 · 대학자율성 침해 넘어 정치도구화 우려, 연세대 교수들, 학생 의사소통 공간 차단
· KNCC 시국성명, "김정권 보수회귀 우려"
- 2면 ·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① -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양혜우 사무국장
- 3면 · 창간 3주년 축하·격려 글모음-〈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 4면 · 창간 3주년 축하·격려 글모음-〈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 전국연합, 전농집회 금지항의 성명

제723호(96.9.10, 화) /160

- 1면 · 국보법 사면자 부산예전 전승일 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교수직 박탈
· 한국여성민우회, 평등한 혼례문화토론회 개최
· 전해투 명동성당 농성 93일째
- 2면 · 이대 총학생회, 인권·북한경제·환경을 주제로 시사강좌
· AI 조사단 9월 10-26일 방한

제724호(96.9.11, 수) /162

- 1면 · 이젠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
· 전국연합, 안기부법 개악 중단을 정기국회에 촉구
· 영광 해발전소 반대 시위 박재완 신부 등 항소심
- 2면 · 사회단체 노동악법 저지 앞장, 16일 사회개혁 공대위 발족
·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동두천 이기순 씨 살해사건 진상규명 촉구
·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 26일째, 현석호 씨 인터뷰

제725호(96.9.12, 목) /164

- 1면 ·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 범민족대회 참가 여학생 사망
- 2면 ·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제726호(96.9.13, 금) /166

- 1면 · 전교조 합법화 산넘어 산, 교사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대립
· 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 2면 ·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반보벤의 불처벌 보고서-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 기본원칙

제727호(96.9.14, 토) /168

- 1면 ·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다", 연세대 사태 인권침해 1차 조사결과 발표
· <연세대 피해학생 증언> 나는 이렇게 당했다
- 2면 · 6월 항쟁 범국민사업추진위 결성키로, 기념사업에서 청산투쟁까지 다양한 계획
· 과거청산 작업 시급, 전국연합 안기부법 개정반대
· 이기순 씨 살인사건, 미 대통령 사과해야

제728호(96.9.17, 화) /170

- 1면 · 루즈벨트상 수상 낮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4년 장애인정책 오히려 후퇴
· 문민정부 장애인죽음 잇따라, 이덕인·최정환·백원옥 씨 등
- 2면 · 민족민주열사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 21일까지 명동·청계천 일대 행사
· 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간

제729호(96.9.18, 수) /172

- 1면 ·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
· 사상통제·검열 강화 밝혀, 검찰 연세대 사태 중간결과 발표
- 2면 ·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요구, 연대모임 교육기본법에 참가돼야
· <자료>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선언 교사 6천명 참가
· 장애인상 수상철회 요구, "장애인, 외교적 희생물"

제730호(96.9.19, 목) /174

- 1면 · 이기순 씨 살해, 미국사과 촉구, 20일 용산기지 앞 살인만행 2차 규탄대회
· 천주교인권위 「평화만들기 1」 콘서트
· 공권력 남용 시민이 막는다, 광주시민 총기남용 경찰과 고소
· <현장스케치> 이기순 씨 살해규탄집회
- 2면 ·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② '푸른영상' 김태일 씨

제731호(96.9.20, 금) /176

- 1면 · 매춘! 필요악인가? 대책마련 시급,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
· 전해투 농성장 공권력 투입, 나현균 위원장 등 21명 연행수사
- 2면 · <동선이네 추석이야기> "철거반원 들어올까봐 무서워요"
· 피해자 진술권 확보키로, 5·18 항소심 대책 논의

제732호(96.9.21, 토) /178

- 1면 ·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114 여성교화원 31% 직업병, 한국통신노조 조계사 농성 1주일째
· 민주당 항의방문·규탄집회, 전해투 위원장등 2명 구속
- 2면 ·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

· <자료>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제733호(96.9.24, 화) /180

- 1면 · 송광영 추모비를 찾아라, 새벽 틈타 중장비로 칠거...경원대측 "모르는 일"
 - 공권력 성추행 항의, 여성계 총리에 항의서한
 - 희생자·열사 합동추모, 제7회 추모제 열려
- 2면 · <고 장현구 군 아버지 장남수 씨> "올 가을엔 아들 묘까지 들보야 해"

제734호(96.9.25, 수) /182

- 1면 · 일본 인권단체 사무국장, 공안요원에게 양심수 석방 서명서 압수당하고, 강제출국
 - 박정기 씨, 추모비를 갖다와라며 무기한 농성
 -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2,3면 · 9월 총목차(제718호- 제734호)

제735호(96.10.1, 화) /187

- 1면 ·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방양군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송광영 추모비 찾기에 온 힘, 유가협 7일째 천막농성
- 2면 · 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인터뷰,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제736호(96.10.2, 수) /189

- 1면 ·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운동,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대학생 인권운동 출발, 인권연대 창립총회
 -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개위 불참' 등 입장 표명
 - 2면 · 국제무대에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정부, 교사단결권 보장 허위 보고
 - 한국여성의 전화, 성교육 대안 찾기 모임
 - 여성민우회 신문기사 모니터, '성차별의식 여전'
 - 평등의 전화 개설 1년 상담사례집 발간
 - 참여연대, 4기 사회복지학교
- 호외 ·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간첩혐의 구속

제737호(96.10.4, 금) /192

- 1면 · 진관스님 간첩 혐의 부인-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 사상·표현의 자유, 그 참된 시작, 박노해 문화제 열려
- 2면 · 세계의 인권①-땅끝에 선 선주민,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제738호(96.10.5, 토) /194

- 1면 ·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 인권운동가 또 구속,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경원 씨

-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재선임
- 2면 · <자료요약>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민의 힘으로 해결을"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외무부 앞 항의시위

제739호(96.10.8, 화) /196

- 1면 · 노진추 회원 23명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대거연행, 전화통까지 떼어가
 - AI 한국방문 결과 논평, "경찰 인권교육 절실"
 - 고 김말룡 의원 장례
- 2면 · 진관스님 불교대책위 안기부 항의 방문, "해외포교 차원의 상식적 행동"
 - 12개 시민단체, 5·18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역사적 요청에 따르길"
 -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이경원 씨 불구속

제740호(96.10.9, 수) /198

- 1면 · 간첩 혐의 간수 교수 1차 공판,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
 - 공안비상벨을 울려라, 노진추 24명 연행, 3명 수배
 -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의 5만6천5백11명
- 2면 · <자료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제741호(96.10.10, 목) /200

- 1면 · 전자주민카드, 프라이버시 침해·정부통제 강화 우려, 저지 운동 뜬다
 - 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 영상악법 및 검열 철폐 전자서명운동 전개
- 2면 · <자료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제742호(96.10.11, 금) /202

- 1면 · 국회, 경찰의 여학생 성추행 국정조사해야-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 2면 · <독자투고>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길-박정석(전 전국빈민연합 간사)
 - 민주노총, 11월 총력투쟁 결의-노동악법 철폐 대중투쟁으로!

제743호(96.10.12, 토) /204

- 1면 ·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2면 · 경찰, 만장 뺏고 영정 깨고-고 이기순 씨 용산미군기지 앞 영결식
 - 진관스님 불구속 수사 촉구, 종교인 안기부 항의방문
 - 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

제744호(96.10.15, 화) /206

- 1면 · '공평한 5·18 재판을 위해'-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 “불법체류자엔 인권없다”-법무부 신변보장 약속파기
- 2면 · 정보전기 유명노조 5년간 지속-국감 폭로에도 회사 폭언등 여전
· 한국성폭력상담소, 제12기 나눔이 모집

제745호(96.10.16, 수)

/208

- 1면 · 노벨평화상 계기로 동티모르에 관심-인권협 등, 정부에 인권외교 정책 수립촉구
· 성추행 항의에 폭력으로 응답-경찰, 여연 캠페인 상식밖 진압
- 2면 ·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 기사 오보-노개위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 재확인
·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영화법 위헌 당연’
·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움직임

제746호(96.10.17, 목)

/210

- 1면 · 송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등 대책시급
· 한총련 공판 방청기-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 2면 ·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 동국대 신문 <소나기>코너 전문 인용
· 근조! 명동성당-신자들, 전해투 농성장 강제철거
·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제747호(96.10.18, 금)

/212

- 1면 ·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 경찰, 추모비 사건 수사외지 있다?-사건발생 26일, 항의농성 24일째
· 민운단체대책위 성명, 노진추 탄압중단촉구
·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 2면 ·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③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정유진 간사

제748호(96.10.19, 토)

/214

- 1면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온 국민 동참을-시민연대 발족
· 고려대, 문화제 행사 ‘희망’ 불허
- 2면 · 울지병원 해고자 단식 18일째 실신-병원측, 복지조건으로 반성문 요구
· 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① <도둑맞은 아이들>

제749호(96.10.22, 화)

/216

- 1면 · 안하무인 공권력, 고개 숙인 대학-청년 문화행사 번번이 원천봉쇄
· 다시보는 국정감사-수사기관의 인권침해
- 2면 · “21세기형 통제 반대”, 전자주민카드 철회 운동
· 노골화되는 경찰폭력-경찰, 영광본당 신부 구타연행

제750호(96.10.23, 수)

/218

- 1면 ·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중-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없다”
· 국민인권기구란?
· 학교가 추모비 탈취, 경찰 공식발표 예정
· 다시보는 국정감사-공안관련사범 구속자 현황
- 2면 ·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하라” 방배4동 철거, 주민 8개월째 대항
·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가두서명
· 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② <망각에 반대하며> <불굴> <유령을 부르며>

제751호(96.10.24, 목)

/220

- 1면 · 한국후꼬꾸, 노조깨기 혈안-노조방침, “때리면 맞겠다”
· 다시보는 국정감사-시위 관련 구속자 현황
- 2면 ·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
· 6월항쟁 10주년 기념공연 <96 당당하게>
· 지하철노조협의회, 유덕상 위원장 석방 촉구
· 한 권의 책-「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

제752호(96.10.25, 금)

/222

- 1면 ·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 한국후꼬꾸, 안전장치 제거하고 작업 강행, 산재 발생
· 당정, 집회강제해산 법제화 기도-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 천주교 전국사제단, 사제 구타사건 강력 항의
- 2면 · <자료 전문> ILO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96년)
· 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③ <숨겨진 이미지> <어느 판료의 죽음> <우리는 왜 노래하지 않는가>

제753호(96.10.26, 토)

/224

- 1면 · 안산 후꼬꾸, 노조 고문변호사 출입금지, 회장실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회부
· 전국연합, 대공수사권 부활 비판,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 다시보는 국정감사-법무부(유엔 인종차별위원회 49차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보고서)
- 2면 · “방어 위해 들을 던졌을 뿐”, 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공판
· 교육개혁연대회의, 교육기본법 등 제·개정 국회청원
· 제1회 인권영화제 상영시간표

제754호(96.10.29, 화)

/226

- 1면 ·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 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
· 다시보는 국정감사-환경노동위(노사분규 관련 구속·수배 현황 및 직장폐쇄 현황)

- 2면 · 23일 부산 송당마을 강제철거 과정에서 철거깡패 흥기에 맞아 주민 중태
- KNCC, 11월 한달간 외국인노동자 선교실무자 교육

제755호(96.10.30, 수)

/228

- 1면 ·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열려
- 다시보는 국정감사-환경노동위(산업재해 통계)
- 2면 · 넥타이부대, 노동법 개악 저지 나서-사무노련 명동성당 결의대회
- 경원대생 연행 시도, 천주교인권위 중재로 실패
-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제 10회 인권상 후보 추천
- 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④ <플로 콘텐플라시온 이야기>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 <평화의 가장자리에서>

제756호(96.10.31, 목)

/230

- 1면 ·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씨 사건 재수사 지시
- 공산주의자연합 결성 혐의, 경찰 직장인 등 8명 구속
- 추모비 학교측 또 부인-경원대 학생과장, 소환 불응
- 2,3면 · 10월분 총목차(735-756호)

제757호(96.11.1, 금)

/235

- 1면 · 성희롱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서광 프라자 여직원 7명
- 한국여성의 전화, 자녀 성교육 강좌 개설
- 미아7동 생가 철거, 주민등 76명 전원연행
- 2면 · 전자주민카드 철회!,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⑤ <하비 밀크의 시대> <미국의 꿈> <이방의 여인들>

제758호(96.11.2, 토)

/237

- 1면 ·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 제한 선이 없다
- 2면 · AI, 공안탄압·안기부 수사권 확대 반대 고문방지위원회에 호소
- 안기부·집시법 개악 저지, 전국연합 오늘 결의대회
- 전노련, 가혹수사제기
- 그들이 무장간첩일까?- PC통신 천리안 '희망터'에 게재한 윤석진씨 글

제759호(96.11.5, 화)

/239

- 1면 · 치졸한 정부, 인권영화제 방해공작-이화여대, 정부 압력에 곤혹
- 2면 · 사람 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
- 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제760호(96.11.6, 수)

/241

- 1면 · 올 상반기 경건완장에 120명 발생, 경건완장에 예방대책 공청회
-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 2면 · 인권영화제 작품⑥ <이발>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 <수단-상처입은 나라>
- <자료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비판

제761호(96.11.7, 목)

/243

- 1면 · 엠네스티,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 "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공권력 성추행, 용납할 수 없는 일-한총련비대위,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 교원 노동권 보장 촉구, 정해숙위원장 단식농성
- 진보정치연합 성명, "인권영화제 보장하라"
- 2면 · <자료>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김주환(미국 펜실버니아대학 박사과정)

제762호(96.11.8, 금)

/245

- 1면 ·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후포꾸, 무더기 징계-핵심조합원 작업도 안 시켜
- 2면 · 가정폭력 남편 살해...집행유예, 13년간 상습 구타당하다 목 졸라
- 고난함께, 12일부터 5주간 제2회 인권교실 열려
- 경총, 정·관계에 뇌물, 노동악법 관철 의도
-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⑦ <암살학교> <지하의 민중>

제763호(96.11.9, 토)

/247

- 1면 ·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 38종 금서목록 46개 좌경출판사 분류 확인
- <인터뷰> 서준식 인권영화제집행위원장, "관객들이 사전심의 철폐운동 지지해줄 것"
- 2면 ·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지방영화제 22일부터 16개 도시 순회상영
-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전국유가협 정기총회, 박정기 씨 회장 선출
- 3면 · <자료> 금서목록, 좌경이념도서 또는 북한원전을 펴낸 출판사 목록 공개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스님 석방 촉구

제764호(96.11.12, 화)

/250

- 1면 · 말레시아 정부, 동티모르 국제회의 참가자 전원추방, 국내 동티모르 연대모임 발족
- 11월12일 동티모르 산타크루즈 대학살을 아십니까?
- 2면 · 서초경찰서, 단속 항의한 노점상에 공포탄 발사, 열흘간 노점상 7명 구속
- 전국연합 성명,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촉구
- 참여연대, 장애학생 수능 편의 요구

제765호(96.11.13, 수)

/252

- 1면 · 조직사건 연행자에게 존중될 인권없다, 남총련 민족해방군 조작 주장...27명 불법연행

- 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의, 차지훈 변호사등 출국
- 2면 · 해고자 죽이는 LG그룹...해고자 단식투쟁, 89년 이후 67명 해고, 한 명도 복직 안돼
 - 민변, 안기부법 개정 철회 촉구
 - 미국 캘리포니아, 소수자 차별 법안 통과, 반대운동하던 대학생 23명 연행

제766호(96.11.14, 목) /254

- 1면 ·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검토위해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등 정보공개 요청
 - 민운탄 대책위, 서초서 총기발사 규탄 성명
 - 한국노총 · 여연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
- 2면 · <자료> 민변 성명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민주노총 여론조사, 경제위기 주범은 정부

제767호(96.11.15, 금) /256

- 1면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21·22조 철폐등 권고
 - 전해투를 도움시다, 농성장 전세금 마련
- 2면 · <한 특수강도 전과자의 한 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유보시 전국 총파업 돌입

제768호(96.11.16, 토) /258

- 1면 · 대학생 연행 '영장 필요없다'-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
 - 말레이시아 정부, 동티모르인 4명등 12명 인도네시아에 넘겨, 항의서한 빗발
 - 공직자 비리근절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전학련 의장등 3명 국보법 위반 긴급구속
- 2면 ·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아동매춘 · 노예노동 증가추세-개도국 2억5천여 명, 아시아 61% 차지

제769호(96.11.19, 화) /260

- 1면 · 남선물산 노동자 쇠사슬 농성-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 요구
- 2면 ·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제770호(96.11.20, 수) /262

- 1면 · LG, 해고자 탄압에 다양한 전략-유령집회신고에 노부모까지 끌어들이
 - 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민족해방군 조작성 항의
 -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여야면담 제안
- 2면 · 굶주림과 영양실조에서 자유로울 권리-전세계 8억 이상의 사람들 영양실조 상태
 - 연대 성추행 진압경찰 고소, 여연등 고발장 접수

- 민주노총 12월 총파업, 올바른 노동법 개정 촉구
- <영화제 감상문> '지하의 민중'을 보고

제771호(96.11.21, 목) /264

- 1면 · 시민 폭행치사 검찰 수사 지연-노병우 씨 유족, 51일째 전대 병원 농성
 - 시민연대,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
 - 새 신분 확인제 필요-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 2면 ·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④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부장

제772호(96.11.22, 금) /266

- 1면 · 송광영 추모비 61일만에 소재 파악-경원대 학생과장 · 장학복지과정 연행 · 조사중
 - 경쟁력 이유로 산재방치, 민주노총 투쟁 불사
 - 달력으로 만나는 민족민주열사, 97년도 민족민주열사 달력 판매
- 2면 ·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 · 인권단체 대표 고발장 제출
 - 노동법 개정방향 비판, 전문가 의견 발표
 - 안산 후포구, 합법집회 폭력으로 진압, 경찰은 수수방관
 - 고소 여학생 증언 요지

제773호(96.11.23, 토) /268

- 1면 · 정보사령부 현역장교 추모비 절취혐의-유가협, "배후조종자 색출, 총장등 사퇴" 주장
 - 제99차 금요시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2면 · 잠옷바람으로 새벽 찬거리 내몰려-현저동, 상계동 등 동계철거 계속
 - 장애인 비하 발언 김현철 씨 사과하라
 - 97년 여성수첩 판매
 - 안기부예산 공개해야
 - 이병설 씨 지난 10월 중순 작고, 간경화 앓아오다 옥중에서 간암 발병

제774호(96.11.26, 화) /270

- 1면 · 추모비 훼손 사건 책임자 고발, 경원대 김원섭 총장 25일 고발장 접수
 - LG 면담 요청자 전원 연행, 전해투 18명 이틀 감금
 - 세계 성폭력 추방 주간이 유래
- 2면 · 각국서 '진관스님 석방' 서명운동-홍콩 ACPP, 김대통령에게 항의편지
 - 늦봄통일상 추천,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 극단 한강 공연 <교실이데아>, 12월5일부터

제775호(96.11.27, 수) /272

- 1면 ·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위헌성 여부 현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민변, "진관스님 석방하라" 성명 발표
- 2면 ·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 위기
 - 참여연대,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 민주노총, 재벌해체 촉구 항의집회
 - 전교조, 철야농성 돌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절실

제776호(96.11.28, 목) /274

- 1면 · 장소 불허, 방송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
 - 언노련, 통일인사 석방 촉구
- 2면 ·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 민주노총, 29일 구속결단식 갖기로, 총파업 초읽기
 - 사고당한 전교조 교사와 가족에 희망을!

제777호(96.11.29, 금) /276

- 1면 ·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 안기부는 불참
 -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2면 · 세계의 인권⑩ 미래를 짓밟는 아동노동; 1억~2억명 어린이, 매춘과 노동에 죽어간다

제778호(96.11.30, 토) /278

- 1면 · 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
 - <인터뷰>전우섭 미군범죄근절본부 대표
 - 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
 - 시국관련 행사 잇따라
- 2면 · 딸을 먼저 보낸 아빠가 <고 류타원 어린이의 아버지 류경렬 교사의 편지>
 - 경원대 현역소령 취업 해명하라, 새정치국민회의 성명
 - 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
- 3,4면 · <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분 총목차(757호-778호)

제779호(96.12.3, 화) /285

- 1면 · 교수·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노동법 개악반대 청원서 제출
 - 범민련 강순정 씨 4년6월 선고
 - 전국연합 과천시장 사건 의혹 수사촉구
- 2면 · 전주 인권영화제 암흑속 진행, 전북대측 전기차단하고 교직원 1백명 동원
 -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합법화추진위 선언

제780호(96.12.4, 수) /287

- 1면 · 청소년 성폭력 대책마련 토론회, 성교육 부재와 대중매체·음란물 탓

-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 안기부법 개정 반대
- 2면 ·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제781호(96.12.5, 목) /289

- 1면 · SOFA 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 보고
 - 미군기지 환경조사 1차 보고서
- 2면 · LG와의 전쟁, 불매운동 시작
 - 민변등 성명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
 -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소개

제782호(96.12.6, 금) /291

- 1면 ·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반대 항의 확산
 -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노동법 개정안 비판
 -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 환경오염실태 공개요구
- 2면 ·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해야, 공익정보제공자 보호조례안 발의
 - 장기복역 양심수에게 연하장을 보냅니다, 양심수 주소록
 - <자료> LG 그룹 대외비 문건에 나타난 노무관리 실태

제783호(96.12.7, 토) /293

- 1면 ·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해 강제연행된 구타등 가혹행위
 - 양심수와 함께하는 천주교 인권주일
 - 교회협 인권주간 선포
 - 함운경 씨 재판 연기
- 2면 ·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앞서
 -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사회원로 1백명 성명
 - 전국연합, 노동법 개악반대
 - 미특정사 압수수색, 진관스님 자작시 압수

제784호(96.12.10, 화) /295

- 1면 · 경찰 폭력진압 여학생 뇌수술, 허가받은 학내집회에 곤봉으로 무자비 진압
 - 장기수,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대법원 상고
- 2면 · LG 해고노동자, 30일째 단식농성
 - AI 세계인권선언일 성명, 국보법 및 사형제도등 폐지 촉구
 - 민주노총 상경투쟁
- 3면 ·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김해성 목사

제785호(96.12.11, 수) /298

- 1면 · 보안관찰대상자 서준식 씨 들인 출국 금지, 인권영화제 패썬죄 추측
· <현장스캐치> 단식농성장을 찾아- LG 해고자 이동렬 ·성한기 씨, 전농 부의장 이장호 씨
- 2면 · <자료요약> 장애우연구소 창립 9주년 심포지엄 김영삼정부 장애인복지정책 평가
· 김형찬 씨 불법수사, 안기부법 개악반대, 시민·사회단체 신한국당 항의방문

제786호(96.12.12, 목) /300

- 1면 · 경원대 총장 '송광영 열사 추모비탈취 사건' 공식사과
· AI, 김대통령에게 장기수 복송 촉구 서신보내
· 광주고법,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했으나 박재완 신부등에 집유 선고
- 2면 · LA타임즈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 무장공비글 PC통신 게재 첫공판서 검찰 피의자 윤석진 씨 전력서비

제787호(96.12.13, 금) /302

- 1면 · 천주교사제단 안기부법 개악반대
· KNCC 10회 인권상에 고 나카지마 목사 수상
·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 2면 ·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
·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한 김형찬 씨
· 민가협 창립 11주년 기념 목요집회

제788호(96.12.14, 토) /304

- 1면 · 국보법 학술토론회 열려,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문제 접근
· 경원대 송광영 추모비 재건팀식, 장현구 1주기 추모식 열려
·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 2면 · 후꼬꾸, 정계·탄압 여전
· 천주교인권위 양심수 석방서명 2만명 넘어
· 통계청 발표, 여성임금 남자의 59.9%

제789호(96.12.17, 화) /306

- 1면 ·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 민주노총 17명 삭발농성, 사회개혁범국민대책위 비상시국농성 돌입
· 5·18재판 결과 납득안가, 전국연합 성명
- 2면 · 모든 매체물 심의·규제, 청소년보호법 인권침해 우려

제790호(96.12.18, 수) /308

- 1면 · 휴먼라이츠 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 부당해고 항의분신 하청업체 노동자 1명

- 안기부법 개악반대 실천불교승가회
- 매매춘을 최소화 방안마련 토론회, 매매춘여성 4천9백여 명 정부민간단체 연대필요
- 2면 · <기고> 한국언론,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장호순(언론학 박사)
· 김형찬 씨 분신기도 관련해 인권단체등 안기부 고발

제791호(96.12.19, 목) /310

- 1면 · 국가보안법 전력자 홍성담 씨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등 집회
·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 2면 · 출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북한딸 편지 "일흔돌 생일상만은 차려 드리리라 기대했건만..."

제792호(96.12.20, 금) /312

- 1면 · LG제품 불매운동 뜻을 올린다, 여의도 불매운동발대식
· 윤석진 씨 징역1년6월 구형, PC통신 무장공비글 게재
· 전국연합, 과천시장 이성환 씨 사건 의혹 규명촉구
- 2면 ·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도 선회
· 전국연합, 임시국회 소집철회 요구
· 김성재 교수 장대협 의장에 취임

제793호(96.12.21, 토) /314

- 1면 · 신한국당의 안기부, 노동법 강행통과에 범민주진영 연일 투쟁
· LG 해고노동자 이동렬 ·성한기 씨 단식중단
·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96년 여성운동 10대 뉴스
- 2면 ·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 워치 1997년 보고서 ①
· 41일째 단식농성을 정리하면서, 이동렬씨 ·성한기 씨 편지

제794호(96.12.24, 화) /316

- 1면 ·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
·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백45명 반대성명 발표
- 2면 · <양심수 강용주 씨의 겨울편지>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

제795호(96.12.26, 목) /318

- 1면 · 국민여론 "안기부법 개악반대", 김형찬 대책위 모금활동 4일만에 1천3백만원 견혀
· '대법 양심의 자유에 족쇄' 국민회의, 이창복 의장 판결에 반대성명
· 서준식 대표 출국
·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
· 사내 집회 보장·유인물 배포 보장촉구, 전남기업 정성철 씨 분신기도 뒤 단식투쟁
- 2면 · <자료요약> 휴먼라이츠 워치 1997년 보고서 ②

제796호(96.12.27, 금)

/320

1면 · 새벽날치기꾼 YS..., 범민주진영 '정권퇴진' 불사
 2면 · <자료> 행려자 인권선언서 "높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인간선언"
 3,4,5면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고문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연세대 노수석 씨 사망/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영화사 전심의 위헌 결정/ 12·12 군사반란 및 5·17내란 심판대에/ 노동법 날치기 개악/ 박충렬·허인회 씨 무죄판결/세계가 경악한 연세대 사태/ 안기부법 개악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침해자, 인권옹호자

정권교체 기반다지기에 짓눌린 인권

김수경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1. 글을 시작하며

작년 하반기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를 겨냥한 터닭이 과정이었다.

8월 한총련 연세대 사태는 6천여 명에 가까운 학생과 시민들이 연행되고, 462명이 구속되는 김영삼정권 들어 최대의 사건이었다. 정부와 언론은 한총련을 '친북이적 단체'로 몰아붙인 채 버랑 끝으로 밀어붙였다. 사태가 끝난 뒤에 정부는 한총련 컴퓨터 통신망 폐쇄를 비롯해 시위주동자 검거를 이유로 수색영장 없이 전국 대학을 들이닥쳤고, 무작위적으로 학생들을 연행해 갔다. 또한 이러한 탄압은 비단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등의 침해가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9월 강릉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이후 더욱 경색되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안기부법 개정논의가 제기되었다. 총체적 경제위기의 해결은 뒷전으로 미룬 채 고통분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노동법 개악과 재집권 전략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을 기도한 안기부법 7조(찬양·고무등)와 10조(불고지) 개악은 대선정국의 폭풍으로 다가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국가안보'를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안보' 때문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96년 하반기 안기부법과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는 사회적 사건은 노동법 개정이다.

당초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을 한다는 명분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8개월 여에 걸친 길고도 지루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내놓은 정부의 노동법안은 자본가들에게는 환호를 받은 반면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 노동법안에 대한 밀고당기는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임시국회로 이어졌다. 그리고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4명은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순식간에 날치기 통과시켜 버렸다. 12월26일 오후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노동악법'·'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는 '위로부터의 문민개혁'의 종결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날치기가 있었던 그날부터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을 중심으로한 '총파업투쟁'은 전국민적 연대투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사회의 노동자계급이 가장

인권유린 날개 단 안기부법 개악 불법수사 항의 김형찬씨 분신기도

연세대 사태, 관수 사건,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등을 계기로 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부터 안기부법과 집시법의 개정 작업에 나섰다. 정기 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악을 기도했던 신한국당은 야당의 육탄 저지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자 12월 23일 임시국회를 개최한 뒤 26일 새벽 6시경 여당 국회의원들만으로 단독 강행처리했다.

이번 안기부법 개정은 93년 안기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안기부의 수사권에서 제외했던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관양죄)와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해서 안기부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충렬, 허인회씨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경희대생 김형찬씨 사건이 터지면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다.

안기부법의 개악으로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안기부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96년 인권침해자 >

* 모두 14명(수사기관 포함)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가장 많이 지명된 이름은 다음과 같다.

- ① 김영삼 대통령
- ② 박일룡 전 경찰청장
- ③ 안기부

이밖에도 성추행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신양중학교 교장, 안기부법 개악에 앞장선 정형근 국회의원, 검찰·경찰등이 거론되었다.

< 96년 인권옹호자 >

* 18개 개인과 단체가 거론되었으며, 다수 지명된 이름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힘쓴 김해성 목사/ 박시환 판사 및 사법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쓴 이종걸·이찬진 변호사/추미애 의원

96년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올 한해는 작년 연말 범민련 관련자들의 무더기 구속과 소위 간첩 김동식사건으로 인한 박충렬·허인회 씨등이 불고지침의로 구속되는 등 공안한파를 호되게 맞으며 시작된다. 많은 사건들이 4월 국회의원 선거 속에 파묻혀 버렸고, 이수성 국무총리의 좌경연단 발언을 전후로 대규모 조직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그리고 한총련 사건, 그리고 하반기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시도로 밀고당기는 긴장감 속에서 새벽 신한국당의 날치기 통과로 국민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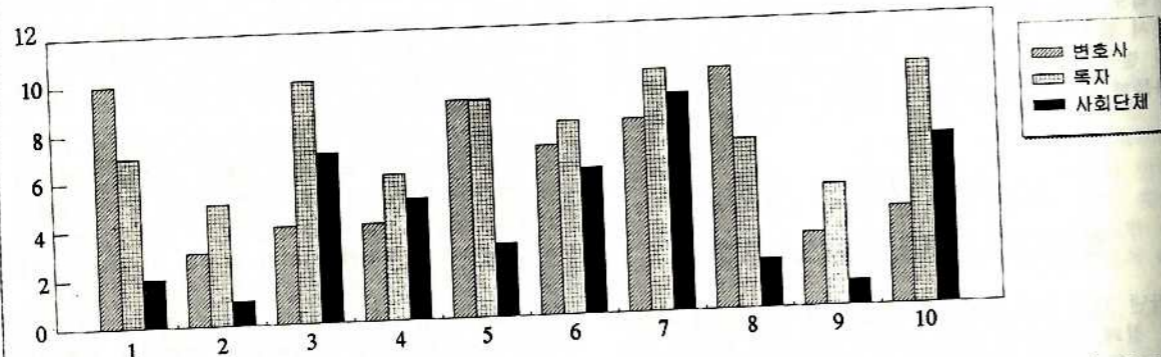
1백30명의 독자들이 가장 많은 표를 준 96년 톱뉴스는 '노동법 개악' 시도이다. 또한 비록 10대 뉴스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방침에 맞서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정부통제 강화를 우려하는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과 8.15 특사에서 양심수 배제, 청와대 밀가루복송사건으로 인한 시사저널 기자의 영장기각, 신양중 교장의 여학생성추행 사건, 가정폭력방지법 국회정원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변호사그룹의 경우 97년 1월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영화법 위헌결정 등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으며, 인권·사회단체의 경우 안기부법 개악, 독자의 경우 노수석 사망, 연세대사태, 노동법 개악 등을 꼽았다.

다가올 97년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대선을 앞둔 시국·공안사건과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폭넓은 인권소식과 소외된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면집실에서-

도표로 본 설문대상별 10대 뉴스 반응도



①영장실질심사제 도입 ②유엔 고문방지위원회등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 발표 ③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④김해성 목사 구속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정원 ⑤영화법 위헌 결정 및 제1회 인권영화제 개최 ⑥ 12·12, 5·18 계관 진행 ⑦노동법 개악 ⑧박충렬, 허인회 무죄판결 ⑨연세대 사태와 여학생 성추행 ⑩안기부법 개악

인권하루소식

합본 VII 색인

(제675호 - 제796호)

부록: 「<인권하루소식> 합본7호」 색인

<색인순서>

- /1. 고문 및 가혹수사 -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2. 과거청산/불처벌(5·18) - <5·18 재판>
- /3. 교육·학원 - <경원대사태/송광영 추모비 사건> <전교조>
- /4.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 - <김형찬 씨 사건> <도청> <불법연행·수사/경찰폭력> <총기사용> <안기부> <안기부법 개악 기도> <연세대 사태> <연세대 사태 여학생 성추행>→<여성>
- /5. 국가보안법 - <21세기 진보학생연합> <노진추> <민족해방군> <박충렬·김태년 씨/간첩 김동식 사건/불고지 사건>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구속>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윤석진 씨 사건>→<정보통신의 자유> <전국학생정치연합> <전국학생투쟁연합> <중부지역당> <한국노동청년연대> <홍성담 씨 사건>
- /6. 국제 - <국제앰네스티> <동티모르> <제일동포 우드로마을>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
- /7. 노동 - <교원노동권>→<전교조> <노동법 개정투쟁> <민주노총> <산업재해> <여성노동자> <외국인노동자> <한국후꼬꾸> <해고노동자/전해투> <LG해고자>
- /8. 노인 /9. 농민
- /10. 미군범죄 - <이기순 씨 살해사건>
- /11. 북한 /12. 사법·판결
- /13. 사회복지
- /14. 양심수·장기수 - <보안관찰법/사회안전법>
- /15. 어린이·청소년 /16. 언론·출판
- /17. 여성 - <가정폭력> <매춘> <성폭력> <연세대사태 여대생 성추행 사건> <일본군 위안부>
- /18. 인권교육 - <기획시리즈: 세계의 인권>
- /19. 인권·사회단체 - <국제앰네스티/AI한국지부> <동티모르연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추모단체>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부패방지법>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20. 인권일반 - <제1회 인권영화제> <인권활동가>
- /21. 장애인
- /22. 정보통신 - <윤석진 씨 사건>
- /23. 주거·도시빈민 /24. 집회·시위의 자유
- /25. 표현·창작의 자유 - <공연> <통신의 자유>→<정보통신>
- /26. 행정
- /27. 환경 - <영광핵반대운동>
- /28. 기타 - <전자주민카드> <월별 총목차> <인권간행물> <주간인권호름>

1. 고문 및 가혹 수사

- 잠안재우고 강압수사, 범민족대회 관련 이승환 씨 검찰송치/96.7.25 2 691 /84
-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패소송 승소,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96.8.28 1 714 /134
- 전노련, 가혹수사 제기/96.11.2 2 758 /238
- 전국연합 과천시장 사건 의혹 수사촉구/96.12.3 1 779 /285
-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96.12.19 1 791 /310
- 전국연합, 과천시장 이성환 씨 사건 의혹 규명촉구/96.12.20 1 792 /312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서 논의-11월13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열려/96.10.30 1 755 /228
- 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의, 차지훈 변호사등 출국/96.11.13 1 765 /252
- 고문방지위원회 권고, 21·22조 철폐, 심문시 변호인참여권 보장등/96.11.15 1 767 /256

2. 과거청산/불처벌(5·18)

- 정의구현사제단, 법적·인적 청산요구 광복절 성명발표/96.8.13 2 704 /115
- 여연, "일본 사과" 촉구 8·15 성명발표/96.8.14 1 705 /116
-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 사범만 포함/96.8.14 1 705 /116
- 경실련등 시민단체, 전·노 사면위한 전주곡이라며 특별사면조치 항의/96.8.17 2 707 /121
- 6월항쟁 범국민사업추진위 결성키로, 기념사업에서 청산투쟁까지 계획/96.9.14 2 727 /169
- 과거청산 작업 시급, 전국연합 안기부법 개정반대/96.9.14 2 727 /169
-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씨 사건 재수사/96.10.31 1 756/230
-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96.12.17 1 789 /306

<5·18 재판>

- "사면정국은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소로 전락 우려/96.8.1 1 696 /97
-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96.8.1 2 696 /98
- '검찰, 학살자에 이유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96.8.6 2 699 /105
- 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96.8.10 1 703 /112
-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 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96.8.27 1 713 /132
- 5·18 재판은 '정치적 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96.8.30 1 716 /139
- <자료> 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96.8.30 2 716 /140
- 피해자 진술권 확보키로, 5·18 항소심 대책 논의/96.9.20 2 731 /177
- 12개 시민단체, 5·18항소심 재판부에 "역사적 요청에 따를 것" 요구/96.10.8 2 739 /197
- <자료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96.10.9 2 740 /199
- '공평한 5·18 재판을 위해'-민변 "피의자진술권 반드시 필요"/96.10.15 1 744 /206
-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96.10.15 1 744 /206
-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96.10.18 1 747 /212

- 5·18재판 결과 납득안가, 전국연합 성명/96.12.17 1 789 /306

3. 교육·학원

- 연대모임,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요구/96.9.18 2 729 /173
- 송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96.10.17 1 746 /210
- 교육개혁연대회의, 교육기본법등 국회청원/96.10.26 2 753 /225
- 극단 한강 공연 <교실이테아>, 12월5일부터/96.11.26 2 774 /271
- 참여연대,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토론회/96.11.27 2 775 /273

<경원대 사태/송광영 추모비 사건>

- 흥보과장, 경찰 투입시 진두지휘, 무법천지 경원대 14명 학생잡기 혈안/96.7.27 1 693/87
- 송광영 추모비 새벽 틈타 중장비로 철거...경원대측 "모르는 일"/96.9.24 1 733 /180
- 박정기씨, 추모비 복구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96.9.25 1 734 /182
- 송광영 추모비 찾기에 온 힘, 유가협 7일째 천막농성/96.10.1 1 735 /187
- 경찰, 추모비 사건 수사의회 있다?-사건발생 26일, 항의농성 24일째/96.10.18 1 747 /212
- 학교가 추모비 탈취, 경찰 공식발표 예정/96.10.23 1 750 /218
- 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96.10.29 1 754 /226
- 경원대생 연행 시도, 천주교인권위 중재로 실패/96.10.30 2 755 /229
- 추모비 학교측 또 부인-경원대 학생과장, 소환 불응/96.10.31 1 756 /230
- 송광영추모비 61일만에 소재 파악-경원대 학생과장등 조사중/96.11.22 1 772/266
- 현역장교 추모비 절취혐의-유가협, "배후조종자 색출, 총장사퇴" 주장/96.11.23 1 773/268
- 추모비 훼손 사건 책임자 고발, 경원대 김원섭 총장 고발장 접수/96.11.26 1 774 /270
- 경원대 현역소령 취업 해명하라, 국민회의 성명/96.11.30 2 778 /279
- 경원대 총장 '송광영 열사 추모비탈취 사건' 공식사과/96.12.12 1 786 /300
- 경원대 송광영 추모비 재건립식, 장현구 1주기 추모식 열려/96.12.14 1 788 /304

<전교조>

- 교사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대립/96.9.13 1 726 /166
- <자료>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교사선언/96.9.18 2 729 /173
- 노동기본권 확보선언 교사 6천명 참가/96.9.18 2 729 /173
-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정부, 교사단결권 보장 허위 보고/96.10.2 2 736 /190
- 교원 노동권 보장 촉구, 정해숙 위원장 단식농성/96.11.7 1 761 /243
- 전교조,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철야농성 돌입/96.11.27 2 775/273
- 사고당한 전교조 교사와 가족에 희망을!/96.11.28 2 776 /275
- <고 류타원 어린이의 아버지 류경렬 교사의 편지>/96.11.30 2 778 /279
-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합법화추진위 선언/96.12.3 2 779 /286

4.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

- 고려대 서창캠퍼스, 군병력 진입으로 긴장, "5공정권 되살아났는가?"/96.8.21 2 709 /125
- <자료> 범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96.9.12 2 725 /165
- 일본 인권단체사무국장, 양심수 석방 서명서 압수·강제출국/96.9.25 1 734 /182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국감자료)/96.10.22 1 749 /216

<김형찬 씨 사건>

-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해 강제연행뒤 가혹행위/96.12.7 1 783 /293
- 김형찬씨 불법수사, 안기부법 개악반대, 사회단체 신한국당 항의방문/96.12.11 2 785 /299
-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한 김형찬 씨/96.12.13 2 787 /303
- 김형찬 씨 분신기도 관련해 인권단체등 안기부 고발/96.12.18 2 790/309

<도청>

- 미행·도청장치 발견, 범민련간부 자택/96.8.10 1 703 /112

<불법연행·수사/경찰폭력>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불법연행·구금/96.7.13 1 684 /69
- 공포의 1시간 30분, 사복경찰 50여 명 이유없이 쫓아와/96.8.6 1 699 /104
- 노골화되는 경찰폭력-경찰, 영광분당 신부 구타연행/96.10.22 2 749 /217
-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광주 북부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96.10.25 1 752 /222
- 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96.11.16 1 768 /258
- 시민 폭행치사 검찰 수사지연-노병우씨 유족, 51일째 전대 병원 농성/96.11.21 1 771 /264
- 경찰 폭력진압 여학생 뇌수술, 학내집회에 곤봉으로 무자비 진압/96.12.10 1 784 /295

<총기사용>

- 유인물 배포 권총으로 막아, 성남시민에 총기위협·항의자 연행/96.8.24 1 712 /130
- 공권력 남용 시민이 막는다, 광주시민 총기남용 경찰과 고소/96.9.19 1 730 /174
- 서초서, 단속항의한 노점상에 공포탄 발사, 열흘간 노점상 7명 구속/96.11.12 2 764 /251
- 민운탄 대책위, 서초서 총기발사 규탄 성명/96.11.14 1 766 /254

<안기부>

-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간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96.8.9 1 702 /110
- <자료> 민변 성명서 안기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96.11.14 2 766 /255
- 안기부예산 공개해야/96.11.23 2 773 /269
-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해 강제연행뒤 가혹행위/96.12.7 1 783 /293

<안기부법 개악 기도>

-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강력 반발/96.9.5 2 720 /153
- 전국연합, 안기부법 개악 중단 정기국회에 촉구/96.9.11 1 724 /162

- 과거청산 작업 시급, 전국연합 안기부법 개정반대/96.9.14 2 727 /169
- 전국연합, 대공수사권 부활 비판,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96.10.26 1 753 /224
- AI, 공안탄압·안기부 수사권 확대 반대 고문방지위원회에 호소/96.11.2 2 758 /238
- 안기부·집시법 개악 저지, 전국연합 결의대회/96.11.2 2 758 /238
- 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96.11.5 2 759 /240
- 민변, 안기부법 개정 철회 촉구/96.11.13 2 765 /253
- 민변,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등 정보공개 요청/96.11.14 1 766 /254
-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96.11.29 1 777/276
- 전국연합, 민운탄범대위 등 시국관련 행사 잇따라/96.11.30 1 778 /278
- 안기부법 개정 반대/96.12.4 1 780 /287
-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반대 항의 확산/96.12.6 1 782 /291
- LA타임즈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96.12.12 2 786/301
- 천주교사제단, 안기부법 개악반대/96.12.13 1 787 /302
-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96.12.14 1 788 /304
-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 선회/96.12.20 2 792 /313
-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백45명 반대성명 발표/96.12.24 1 794 /316
- 김형찬 대책위 모금활동 4일만에 1천3백만원 견혀/96.12.26 1 795 /318
- 새벽날치기꾼 YS..., 범민주진영 '정권퇴진' 불사/96.12.27 1 796 /320

<연세대 사태>

- 정부 통일축전 폭력대응, 전경 투석으로 학생 증상/96.8.13 2 704 /115
- 전경치르듯 집회진압, 학생들 통일운동 전개 배경 침묵/96.8.16 1 706 /118
-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96.8.16 1 706 /118
- 제2의 건대 사태우려, 자진해산 요구목살...경찰 검거작전 돌입/96.8.17 1 707 /120
- 16일 20:10시 현재, 이한열 추모비 앞을 가로막은 경찰병력/96.8.17 1 707 /120
- 공권력 행사 인간존엄성 보장선에서, 언론 반인권적 간접살인 부추겨/96.8.20 1 708 /122
- 생리대 전달 차단, 여연 등 "안전귀가 보장" 요구/96.8.20 2 708 /123
- 연세대 사태에 대한 재야출신 국회의원 발언/96.8.20 2 708/123
- '정부 연대사태 평화해결 의지 없었다', 사회단체 과잉진압 규탄대회/96.8.21 1 709 /124
- 폭력적·반이성적 정부 비판, 학계·종교계 등 입장 발표/96.8.21 1 709 /124
- 민가협 간사 연행, 연회동서 학부모 돕던 중/96.8.21 1 709 /124
- 원인규명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96.8.21 2 709 /125
- 연행자 확인전화 '182' 검거에 역이용, 부상자 치료뒀전 사법처리 혈안/96.8.22 1 710 /126
- AI 연세대 사태 인권보장 촉구, 조사과정 부당대우 금지 요청/96.8.22 1 710/126
-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96.8.22 1 710 /126
-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 명 결집/96.8.22 2 710/127
- <연세대 사태 부상자 소식> 실명 4명, 두 개골 함몰, 뇌사, 뇌출혈.../96.8.22 2 710 /127
-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96.8.23 1 711 /128

- 전국연합, 김 이경 죽음 애도 성명/96.8.23 1 711 /128
- 연세대사태 인권침해 상상 초월, 구타·성희롱부터 조작으로 구속까지/96.8.24 2 712 /131
-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받습니다/96.8.29 2 715/137
- 한총련,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조사위 백서발간 예정/96.8.30 2 716 /140
- 연세대 사태 경찰 인권유린 속속 드러나-성추행 항의에 곤봉으로 구타/96.8.31 1 717/141
- 한총련 관련 시국토론회, 정부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96.9.5 1 720 /152
- AI, 성명서 발표 “한총련 사태 노동운동계 확산 우려”/96.9.6 1 721 /154
- 연세대 교수들, 학생 의사소통 공간 차단/96.9.7 1 722 /156
-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 26일째, 현석호 씨 인터뷰/96.9.11 2 724 /163
-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다”, 연세대 사태 인권침해 1차 조사결과 발표/96.9.14 1 727 /168
- <연세대 피해학생 증언> 나는 이렇게 당했다/96.9.14 1 727 /168
- 검찰 연세대 사태 중간결과 발표, 사상통제·검열 강화발혀/96.9.18 1 729 /172
- 한총련 공판 방청기-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96.10.17 1 746 /210
- “방어 위해 돌을 던졌을 뿐”, 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공판/96.10.26 2 753/225
- 민변,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등 정보공개 요청/96.11.14 1 766 /254
-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96.11.23 1 773 /268

<연세대 사태 여학생 성추행>→<여성>

5. 국가보안법

-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96.7.16 1 685 /71
-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96.7.16 1 685 /71
-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96.7.16 2 685 /72
-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96.7.19 1 687 /75
- 간수 교수 변호인들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96.7.20 2 688/78
- 간수 교수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96.7.23 1 689 /79
-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96.7.23 1 689 /79
-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96.7.23 2 689 /80
-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개폐문제②, 국보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96.7.24 2 690/82
- 96 민족평화선언, 각계 인사 106인 참여/96.7.27 1 693 /87
- “조직표 갖고 추궁했다”, 상지대 출신 7명 국보법 연행/96.7.30 2 694 /90
- 7월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96.7.30 2 694 /90
- 전국연합 자통위원장 조성우 씨 구속/96.7.31 1 695 /91
- 통일운동단체, 안기부 방문해 통일운동 보장 촉구/96.8.3 1 698 /102
-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96.8.7 1 700 /106
- 각계인사 109인, 반민주 악법개폐 촉구 선언/96.8.7 2 700 /107
-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국보법 철폐 공동준비/96.8.7 2 700 /107
- “국보법은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96.8.8 1 701 /108

- 또 다른 조직사건 부산외대 총학간부 11명 연행/96.9.4 1 719 /150
- 현대판 연좌제, 남편 국보법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96.9.5 2 720 /153
- ‘공개조직 활동 7명 연행’, 서울대 애국청년선봉대/96.9.6 1 721 /154
-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부산예전 전승일 씨/96.9.10 1 723 /160
-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96.10.5 2 738 /195
- 간첩 혐의 간수 교수 1차 공판,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96.10.9 1 740 /198
- 동국대 학보, 교내 낙서판 게재한 이유로 국보법 적용받아/96.10.17 2 746 /211
- 동국대 학보 <소나기>코너 전문 인용/96.10.17 2 746 /211
-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임용-경기교육청, 차정원 씨 행정심판 답변에서/96.10.18 1 747 /212
- 공안관련사범 구속자 현황(국감자료)/96.10.23 1 750 /218
- 시위 관련 구속자 현황(국감자료)/96.10.24 1 751 /220
- 공산주의자연합 결성 혐의, 8명 구속/96.10.31 1 756 /230
- 범민련 강순정 씨 4년6월 선고/96.12.3 1 779 /285
- 무장공비급 PC통신 게재 첫공판서 검찰 피의자 윤석진 씨 전력시비/96.12.12 2 786 /301
- 국보법 학술토론회 열려,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96.12.14 1 788 /304

<21세기 진보학생연합>

- 21세기연합 12명 구속, 공안칼날 ‘진보’ 단체 겨냥/96.7.9 2 680 /62

<노진추>

- 노진추 회원 불법 연행/96.7.3 1 676 /53
- 노진추 회원 23명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대거 연행/96.10.8 1 739 /196
- 공안비상벨을 울려라, 노진추 24명 연행·3명 수배/96.10.9 1 740 /198
- 민운단체책임 성명, 노진추 탄압중단 촉구/96.10.18 1 747 /212

<민족해방군>

- 남총련 민족해방군 조작 주장...27명 불법연행/96.11.13 1 765 /252
- 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민족해방군 조작에 항의/96.11.20 1 770 /262

<박충렬·김태년 씨 사건/ 간첩 김동식 사건/ 불고지 사건>

- 박충렬 씨 무죄, “국가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96.7.13 1 684 /69
- 박충렬 씨 사건일지/96.7.13 1 684 /69
-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96.11.9 2 763 /248
- 전국연합 성명,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추구/96.11.12 2 764 /251
- 함운경 씨 재판 연기/96.12.7 1 783 /293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구속>

- 진관스님 간첩혐의 구속/96.10.2 호의 /191

- 진관스님 간첩 혐의 부인-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96.10.4 1 737 /192
- 진관스님 불교대책위 안기부 항의 방문, "해외포교 차원의 상식적 행동"/96.10.8 2 739/197
- 진관스님 불구속 수사 촉구, 종교인 안기부 항의방문/96.10.12 2 743 /205
- 엠네스티,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96.11.7 1 761 /243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스님 석방 촉구/96.11.9 3 763 /249
- 각국서 '진관스님 석방' 서명운동-홍콩 ACPP, 김대통령에게 항의편지/96.11.26 2 774/271
- 민변, "진관스님 석방하라" 성명/96.11.27 1 775 /272
- 미륵정사 압수수색, 진관스님 자작시 압수/96.12.7 2 783 /294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 청년운동단체 비상,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13명 또 연행/96.7.12 1 683 /67
- "탄압, 투쟁으로 대응" 애청, 명동성당 농성/96.7.18 1 686 /73

<윤석진 씨 사건>→<정보통신의 자유>

<전국학생정치연합>

- 전학련 사건공개질의에 청와대 무반응/96.7.2 1 675 /51
-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96.8.22 1 710 /126
- 전학련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긴급구속/96.11.16 1 768 /258
- 전학련 성명,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촉구/96.11.19 2 769 /261

<전국학생투쟁연합>

- 전학투련 또 1명, 국보법 위반 연행/96.7.5 2 678 /58

<중부지역당>

- 중부지역당 사건 구속, "과거 들추기 여전"/96.7.9 2 680 /62

<한국노동청년연대>

- "민주주의하에서 맑스주의 인정 못해", 한국노동청년연대 5명 집유/96.7.27 1 693 /87

<홍성담 씨 사건/출국의 자유>

- 홍성담 씨 여권발급 한달이상 지연,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참가예정/96.8.6 1 699/104
- 홍성담 씨 출국불허에 영국언론 대서특필, 한국대사관에 영국민들 항의 잇따라/96.8.9 1 702/110
- 홍성담 '여행자유' 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96.8.21 2 709 /125
-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해소송/96.8.29 1 715 /136
- 홍성담 씨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96.12.19 1 791 /310

6. 국제

- CIA 정보원, 암살·고문 자행했다고 미 백악관 보고서 밝혀/96.7.13 2 684 /70
- 언론폭력에 분노한 어느 일본 주부 이야기, 선동렬 투수 부진 이유는?/96.8.7 2 700 /107
- 수출용 전투기 부순 여성평화운동가 무죄선고/96.8.8 1 701/108
- 캘리포니아, 소수자 차별 법안 통과, 반대운동하던 대학생 23명 연행/96.11.13 2 765 /253

<국제엠네스티>

- <자료> AI 보고서 96 남한편①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96.7.3 2 676 /54
- AI, 인턴 모집 26일까지 신청/96.7.3 2 676 /54
- <자료> AI 보고서 96 남한편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 재심요구/96.7.10 2 681 /64

<동티모르>

-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인권협 초청으로 방한/96.7.2 1 675 /51
- "아태지역의 국제지원 촉구", 호주 시드니 동티모르 국제회의 열려/96.7.2 2 675 /52
- <인터뷰>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산토스 씨/96.7.4 1 677 /55
- 동티모르 모임 "동티모르에도 위안부있다"고 밝혀/96.7.6 1 679 /59
-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96.9.21 2 732 /179
- "노벨평화상 계기로 동티모르에 관심을" 인권협 등, 정부에 인권외교 정책 수립촉구/96.10.16 1 745 /208
- 산타크루즈대학살 5주년-말레이시아 정부, 국제회의 참가자 전원추방/96.11.12 1 764 /250
- 11월12일 산타크루즈 대학살을 아십니까?/96.11.12 1 764 /250
- 말레이시아 정부, 동티모르인 4명등 12명 인도네시아에 넘겨/96.11.16 1 768 /258

<재일동포 우토로마을>

- "우토로교민 주거권 인권하라", 인권협 항의서한 일본대사관에 전달/96.7.26 2 692 /86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

- UN 인권소위, 5·18 등 불처벌 문제다뤄/96.8.3 1 698 /102
-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96.8.29 2 715 /137
-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96.8.29 3 715 /138
- 1503호 절차란?/96.8.29 3 715 /138
- <자료> 제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 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96.9.3 3 718 /149
- <자료> 제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 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②/96.9.4 2 719 /151
- <자료> 제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 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96.9.13 2 726 /167

7. 노동

- 안산 계양전기 집단폭력 사태, 회사측 "제3자 개입에 항의했을 뿐"/96.7.11 1 682 /65

- 단병호 씨 만기출소, 민주노총 15일 환영회/96.7.12 2 683 /68
- 대립노조 회사 노조운영 개입에 반발, 창원지법 사측 교섭거부권 확대/96.8.1 2 696 /98
- 구속자 가족 사원아파트서 내몰아, 한진중공업 가족 상경투쟁/96.8.17 2 707 /121
- 아시아자동차 노조 위원장 등 2명 구속/96.8.22 2 710 /127
- “노조와해 맞서 싸울터” 현중간부 단식농성/96.9.3 1 718 /147
- 교환원 ‘정년차별인정’에 항의집회/96.9.3 2 718 /148
-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위한 노조와해 공작/96.10.5 1 738 /194
- 고 김팔룡 의원 장례/96.10.8 1 739 /196
- 경보전기 유령노조 5년간 지속-국감 폭로에도 회사 폭언등 여전/96.10.15 2 744 /207
- 공안관련사범 구속자 현황(국감자료)/96.10.23 1 750 /218
- 지하철노조협의회, 유덕상 위원장 석방 촉구/96.10.24 2 751 /221
- <자료 전문> 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96년)/96.10.25 2 752 /223
- P. “노동법위반 ‘구속’·추방자 및 ‘노동책’의 관련 처장폐쇄”현황(국감자료)/96.10.29 1 754 /226
- 경총, 정·관계에 뇌물, 노동악법 관철 의도/96.11.8 2 762 /246
-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확대 시급/96.11.16 2 768 /259
- 남선물산 노동자 석사슬 농성-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 요구/96.11.19 1 769 /260
- 포철 하청업체 노동자 정성철 씨, 부당해고 항의분신/96.12.18 1 790 /308
- 사내집회 및 유인물 배포 보장촉구, 전남기업 정성철 씨 분신기도 뒤 단식투쟁/96.12.26 1 795/318
- 포철의 ‘협력작업 기존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96.12.26 2 795 /319

<교원노동권>→<전교조>

<노동법개정투쟁>

- 민주노총, 정리해고제등 강행시 총파업 불사/96.7.4 1 677 /55
- 민주노총, 명동성당 기자회견서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투쟁 밝혀/96.7.6 1 679 /59
- 민변등, “노동법 개악 의혹”에 대한 공동기자회견/96.7.6 2 679 /60
- 현총련, 정리해고제 반대하며 경총 항의방문/96.7.11 1 682 /65
-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96.7.19 2 687 /76
- “누구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노개위 토론회 참석노동자 61명 연행/96.7.25 2 691 /84
- 7개 사회단체 노사관계개혁토론회/96.8.29 1 715 /136
- 1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노사관계법 개정방향 공동선언문 발표/96.9.6 1 721 /154
- 사회단체 노동악법 저지 앞장, 사회개혁 공대위 발족/96.9.11 2 724 /163
- 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96.10.10 1 741 /200
-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 기사 오보-민주노총 불참 재확인/96.10.16 2 745 /209
- OECD, 한국 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96.10.17 2 746 /211
- 넥타이부대, 노동법 개악 저지 나서-사무노련 명동성당 결의대회/96.10.30 2 755 /229
-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유보시 전국 총파업 돌입/96.11.15 2 767 /257
-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정의발생 신고/96.11.19 2 769

/261

- 민주노총 12월 총파업, 올바른 노동법 개정 촉구/96.11.20 2 770 /263
- 노동법 개정방향 비판, 전문가 의견 발표/96.11.22 2 772 /267
- 민주노총, 구속결단식 갖기로, 총파업 초읽기/96.11.28 2 776 /275
-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96.11.29 1 777 /276
- 교수·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노동법 개악반대 청원서 제출/96.12.3 1 779 /285
-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 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96.12.4 1 780 /287
- 민변등 성명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96.12.5 2 781 /290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노동법 개정안 비판/96.12.6 1 782 /291
- 전국연합, 노동법 개악반대/96.12.7 2 783 /294
- 민주노총 상경투쟁/96.12.10 2 784 /296
-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96.12.13 1 787 /302
- 민주노총 17명 삭발농성, 사회개혁법국민대책위 비상시국농성 돌입/96.12.14 1 789 /304
- 휴먼라이츠 워치 97 인권보고서...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96.12.18 1 790 /308
-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등 집회/96.12.19 1 791 /310
- 신한국당의 안기부, 노동법 강행통과에 범민주진영 연일 투쟁/96.12.21 1 793 /314
- 새벽날치기꾼 YS...범민주진영 ‘정권퇴진’ 불사/96.12.27 1 796 /320

<민주노총>

- 3년전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마창의장 구속/96.7.10 2 681 /64
-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63.6% 올바른 노동법개정 예상/96.7.31 1 695 /91
-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를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96.8.2 1 697 /99
- 민주노총 총력투쟁,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없는 노동법개정 거부/96.8.13 1 704 /114
- 미국 민주당 초청으로 권영길 위원장 출국/96.8.20 2 708 /123
- ‘노개위 불참’ 등 입장 표명/96.10.2 1 736/189
- 11월 총력투쟁 결의-노동악법 철폐 대중투쟁으로! /96.10.11 2 742 /203
- 여론조사, 경제위기 주범은 정부/96.11.14 2 766 /255
- 경쟁력 이유로 산재방지, 민주노총 투쟁 불사/96.11.22 1 772 /266
- 재벌해체 촉구 항의집회/96.11.27 2 775 /273

<산업재해>

- 민주노총, 10명중 3명만 산재 처리-산재율 정부발표보다 3.5배 높아/96.7.4 1 677 /55
-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96.7.18 2 686 /74
- 원진, 3백19명 직업병 추가 판정 보상금 확보·전문병원 건립 시급/96.7.24 1 690 /81
- 114 여성교환원 31% 직업병, 한국통신노조 조계사 농성 1주일째/96.9.21 1 732 /178
- 산재발생현황(국감자료)/96.10.30 1 755 /228
- 올 상반기 경건완장에 1백20명 발생, 경건완장에 예방대책 공청회/96.11.6 1 760 /241

<여성노동자>

-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양대 노총 여성정책토론회/96.7.9 1 680 /61
- 여성노동자회, 여성직업훈련생 취업 사례 9월10일까지 수집/96.8.13 2 704 /115
- 통계청 발표, 여성임금 남자의 59.9%/96.12.14 2 788 /305

<외국인노동자>

-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 추진/96.7.3 1 676 /53
- 합법 취업자 5.8%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96.7.6 2 679 /60
- 3당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상정 약속, 3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 마감/96.7.19 1 687 /75
- 법무부, 친목단체인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석위/96.7.20 1 688 /77
- “상급자 명령 불복종시 강제 출국”, 중국인연수생 8명 기독교회관 농성/96.7.27 2 693/88
- 기독교대책본부, UN 인권소위에 한국내 외노 인권탄압 폭로/96.8.6 2 699 /105
- 외노협 28일부터 이주노동자 워크샵/96.8.27 1 713/132
-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의 5만6천5백11명/96.10.9 1 740 /198
-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변보장 약속파기/96.10.15 1 744 /206
-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움직임/96.10.16 2 745 /209
-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김해성 목사/96.12.10 3 784 /297

<한국후고꾸>

- 노조계기 혈안-노조방침, “때리면 맞겠다”/96.10.24 1 751 /220
- 안전장치 제거하고 작업 강행, 산재 발생/96.10.25 1 752 /222
- 노조 고문변호사 출입금지, 회장실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회부/96.10.26 1 753 /224
- 무더기 징계-핵심조합원 작업도 안 시켜/96.11.8 1 762 /245
- 합법집회 폭력으로 진압, 경찰은 수수방관/96.11.22 2 772 /267
- 징계·탄압 여전/96.12.14 2 788 /305

<해고노동자/전국해고·구속·수배노동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 전해투 후원회 모집/96.7.5 2 678/58
- 복직합의 불이행, 대우해고자 상경투쟁/96.7.5 2 678 /58
- 복직합의서 이행 대신 폭력테러, 대우해고자 17명 업무방해로 고소/96.7.25 1 691 /83
- 대우정밀 해고자복직 투쟁 일지(89년~현재)/96.7.25 1 691 /83
- <대우정밀 해고자들이 원직복직을 원하는 까닭>/96.7.27 2 693 /88
- 대우그룹, 해고자 집회 막기 위해 회장집앞 등 한달간 집회신고 /96.8.14 2 705 /117
- 복직대신 경호원 이용해 집단폭행, 대우해고노동자 사당의원 입원/96.8.28 2 714 /135
- 대우해고자, 폭행 지시·방조 혐의로 김우중 회장 고소/96.9.3 2 718 /148
- 전해투 명동성당 농성 93일째/96.9.10 1 723 /160
- 전해투 농성장 공권력 투입, 나현균 위원장 등 21명 연행수사/96.9.20 1 731 /176
- 민주당 항의방문·규탄집회, 전해투 위원장등 2명 구속/96.9.21 1 732 /178

- 근조! 명동성당-신자들, 전해투 농성장 강제철거/96.10.17 2 746 /211
- 을지병원해고자 단식 18일째 실신-병원측, 복직조건으로 반성문 요구/96.10.19 2 748 /215
- 전해투를 도움시다, 농성장 전세금 마련/96.11.15 1 767 /256

<LG해고자>

- 전해투, 반복되는 LG해고자 연행·석방에 항의하며 노동부 방문/96.7.2 1 675 /51
- LG 해고자 단식투쟁, 89년 이후 67명 해고, 한 명도 복직 안돼/96.11.13 2 765 /253
- LG, 해고자탄압에 다양한 전략-유령집회신고에 노부모까지 끌어들여/96.11.20 1 770 /262
- LG 면담 요청자 전원 연행, 전해투 18명 이틀 감금/96.11.26 1 774 /270
- LG와의 전쟁, 불매운동 시작/96.12.5 2 781 /290
-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소개/96.12.5 2 781 /290
- <자료> LG 그룹 대외비 문건에 나타난 노무관리 실태/96.12.6 2 782 /292
- LG 해고노동자, 30일째 단식농성/96.12.10 2 784 /296
- <현장스케치> 단식농성장을 찾아- LG 해고자 이동렬·성한기 씨, 전농 이장호 부의장 /96.12.11 1 785 /298
- LG제품 불매운동 뜻을 올리다, 여의도 불매운동발대식/96.12.20 1 792 /312
- LG 해고노동자 이동렬·성한기 씨 단식중단/96.12.21 1 793 /314
- 41일째 단식농성을 정리하면서, 이동렬씨·성한기 씨 편지/96.12.21 2 793 /315

8. 노인

-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96.7.30 1 694 /89
-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96.8.1 2 696/98
- 「이동약자 위한 기본법」 토론회/96.8.8 2 701 /109
-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96.10.24 2 751 /221
-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소득보장 가장 시급/96.11.8 1 762 /245

9. 농민

- 쌀수입 반대, 농민들 대대적 투쟁 결의/96.8.16 2 706 /119
- 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96.11.30 1 778 /278
- <현장스케치> 단식농성장을 찾아- LG 해고자 이동렬·성한기 씨, 전농 이장호 부의장 /96.12.11 1 785 /298

10. 미군범죄

-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준비위원회 발족/96.8.3 2 698 /103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외무부 앞 항의시위/96.10.5 2 738 /195
- 제99차 금요시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6.11.23 1 773 /268
- 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96.11.30 1 778 /278

- <인터뷰> 전우섭 미군범죄근절본부 대표/96.11.30 1 778 /278
- SOFA 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 보고/96.12.5 1 781 /289
- 미군기지 환경조사 1차 보고서/96.12.5 1 781 /289
-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 환경오염실태 공개요구/96.12.6 1 782 /291

<이기순 씨 살해사건>

-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동두천 이기순 씨 살해사건 진상규명 촉구/96.9.11 2 724 /163
- 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96.9.13 1 726 /166
- 이기순 씨 살인사건, 미 대통령 사과해야/96.9.14 2 727 /169
- 20일 용산기지 앞 이기순 씨 살인만행 2차 규탄대회/96.9.19 1 730 /174
- <스케치> 이기순 씨 살해 규탄집회/96.9.19 1 730/174
- 경찰, 만장 뺏고 영정 깨고-고 이기순 씨 용산미군기지 앞 영결식/96.10.12 2 743 /205

11. 북한

- 남북합의 이행촉구, 종교인 전국순례 마감/96.7.5 1 678 /57
- <자료> AI 보고서 96 북한편-별목공 강제소환, 이재민 50만명 탈주/96.7.19 2 687 /76
- 전국연합, 북한수재민돕기 쌀 '더위에 부패 위험'으로 적십자사 전달/96.7.24 1 690 /81

12. 사법·판결

-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96.8.28 1 714 /134
-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96.10.5 2 738 /195
-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96.11.27 1 775 /272
-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96.12.24 1 794/316
- 대법 양심의 자유에 족쇄, 국민회의 이창복의장 판결에 반대성명/96.12.26 1 795 /318

13. 사회복지

-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96.11.6 1 760 /241
-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96.12.13 2 787 /303

14. 양심수·장기수

- 고문후유증 앓고 있는 장기수 유정식 씨 석방촉구/96.7.5 1 678 /57
- 광주교도소 양심수, 공안탄압 중지 단식/96.7.11 1 682 /65
- 김 추기경, 청와대에 박노해 씨 석방 탄원/96.7.13 2 684 /70
- "재일교포 정치범 석방하라" 일본의원 1백30명, 장기수 석방 서명/96.7.18 1 686 /73
-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고 싶어 왔다"/96.7.18 1 686 /73
- 민가협 발표,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96.7.30 1 694 /89
-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96.8.9 2 702 /111

- 장기수 김인서 씨 원편 전신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96.8.10 1 703 /112
- 대전충남겨레모임, 양심수 석방 행사/96.8.10 2 703 /113
- "양심수가 사람이름인가요?", 명동에서 확인한 인권의 사각지대/96.8.10 2 703 /113
- 15일 대전교도소서 이현치·김태홍 씨 석방/96.8.17 2 707 /121
- 구속자 상황판/96.8.20 1 708 /122
- 구속자 상황판/96.8.27 2 713 /133
- 국제 비정부단체에 중재요청 계획,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씨 송환돼야/96.9.5 1 720 /152
- 박노해 문화제 열려/96.10.4 1 737 /192
- 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민족해방군 조작에 항의/96.11.20 1 770 /262
- 인노련, 통일인사 석방 촉구/96.11.28 1 776 /274
- 장기복역 양심수에게 연하장을 보냅니다, 양심수 주소록/96.12.6 2 782 /291
- AI, 김대통령에게 장기수 복송 촉구 서신보내/96.12.12 1 786 /300
- 천주교인권위 양심수 석방서명 2만명 넘어/96.12.14 2 788 /305
- 출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북한딸 편지/96.12.19 2 791 /311
- <양심수 강용주 씨의 겨울편지>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96.12.24 2 794/317
-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96.12.26 1 795 /318

<보안관찰법/사회안전법>

-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96.10.1 1 735 /187
-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96.11.27 1 775 /272
- 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96.11.30 2 778 /279
- 장기수,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대법원 상고/96.12.10 1 784 /295
- 보안관찰대상자 서준식 씨 들연 출국 금지, 인권영화제 폐쇄죄 추측/96.12.11 1 785 /298
- 서준식 대표 출국/96.12.26 1 795/318

15. 어린이·청소년

- 체험! 삶의 현장, 청소년 열린학교/96.7.20 1 688 /77
- 여성유치원 성폭행 대책위, 어린이보호특별법 제정 촉구/96.7.30 2 694 /90
- 『이동약자 위한 기본법』 토론회/96.8.8 2 701 /109
- 아동매춘·노예노동 증가추세-개도국 2억5천여 명, 아시아 61% 차지/96.11.16 2 768 /259
- 청소년 성폭력 대책마련 토론회, 성교육 부재와 대중매체·음란물 탓/96.12.4 1 780 /287

16. 언론·출판

- 전국 서점서 보안과 형사들 <말>지 판매금지 협박/96.7.31 1 695 /91
- 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시사뉴스 또 구속/96.8.2 1 697 /99
- 원인규명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96.8.21 2 709 /125
- 여성민우회 신문기사 모니터, '성차별의식 여전'/96.10.2 2 736 /190

-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 기사 오보-노개위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96.10.16 2 745 /209
-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38종 금서목록, 46개 좌경출판사/96.11.9 1 763 /247
- <자료> 금서목록, 좌경이념도서 또는 북한원전을 펴낸 출판사 목록/96.11.9 3 763 /249
- <기고> 한국언론,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장호순/96.12.18 2 790 /309

17. 여성

- 「이동약자 위한 기본법」 토론회/96.8.8 2 701 /109
- 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정신대·고용 주요의제/96.8.17 2 707 /121
- 고용평등추진본부 결산, 승진 성차별 가장 많아/96.8.21 2 709 /125
- 여성의 전화, 26기 여성상담 교육/96.8.27 1 713 /132
- 동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96.8.27 2 713 /133
- 한국여성민우회, 평등한 혼례문화토론회 개최/96.9.10 1 723 /160
- 한국여성의 전화, 성교육 대안 찾기 모임/96.10.2 2 736 /190
- 여성민우회 신문기사 모니터, '성차별의식 여전'/96.10.2 2 736 /190
- 평등의 전화, 개설 1년 상담사례집 발간/96.10.2 2 736 /190
- 한국여성의 전화, 자녀 성교육 강좌 개설/96.11.1 1 757 /235
- 한국노총·여연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96.11.14 1 766 /254
- 97년 여성수첩 판매/96.11.23 2 773 /269
-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96년 여성운동 10대 뉴스/96.12.21 1 793 /314

<가정폭력>

- 이상희 할머니 집유 판결,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96.7.6 1 679 /59
- 가정폭력에 경찰의 적극 개입 필요, 경찰 "가정에서 해결해라"/96.7.23 1 689/59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96.8.23 2 711 /129
-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96.9.25 1 734 /182
- 가정폭력 남편 살해...집행유예, 13년간 상습 구타당하다 목 졸라/96.11.8 2 762 /246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앞서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96.12.7 2 783/294

<매춘>

- 매춘 여성 1백20여 만명, 여성민우회 대책마련 촉구/96.8.28 2 714 /135
-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96.9.20 1 731 /176
- 매매춘을 최소화 방안마련 토론회, 정부·민간단체 연대필요/96.12.18 1 790 /308

<성폭력>

-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보도 통해 드러난 언론의 '남성중심의 성의식'/96.7.9 1 680 /61
- 신앙중 대책위, 성폭력 사례발표 기자회견/96.7.10 1 681 /63
-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례>/96.7.10 1 681 /63
-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기금마련/96.7.13 2 684 /70

- 성폭력 사건 흥미보다 대책마련을/96.7.20 2 688 /78
- 우성유치원성폭행 대책위, 어린이보호특별법 제정 촉구/96.7.30 2 694 /90
-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예방지침서 제작/96.8.1 1 696 /97
- 성폭력대책위, 성폭력예방 종합대책마련 촉구 서명서 민원실 접수/96.8.10 2 703 /113
- 성폭력대책위, 8월말 성폭력 추방대회 각 단체 참여 요망/96.8.14 2 705 /117
- 한국성폭력상담소, 제12기 나눔이 모임/96.10.15 2 744 /207
- 성희롱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서광 프라자 여직원 7명/96.11.1 1 757 /235
- 세계 성폭력 추방 주간의 유래/96.11.26 1 774 /270

<연세대 사태 여대생 성추행 사건>

-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다", 연세대 사태 인권침해 1차 조사결과 발표/96.9.14 1 727 /168
- 공권력 성추행 항의, 여성계 총리에 항의서한/96.9.24 1 733 /180
- 국회, 경찰의 여학생 성추행 국정조사해야/96.10.11 1 742 /202
- 성추행 항의에 폭력으로 응답-경찰, 여연 캠페인 상식밖 진압/96.10.16 1 745 /208
- 공권력 성추행, 용납안돼-한총련비대위,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96.11.7 1 761/243
- 연대 성추행 진압경찰 고소, 여연등 고발장 접수/96.11.20 2 770 /263
-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96.11.22 2 772 /267
- 고소 여학생 증언 요지/96.11.22 2 772 /267

<일본군 위안부>

- UN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 일본 국민기금 지급 철회/96.7.3 1 676 /53
- 나눔의 집 여름캠프/96.7.10 1 681 /63
- 정대협, 기금반대 서한/96.7.23 1 689 /79
- 정대협, 국민기금 반대 일본 순회집회/96.8.7 2 700 /107
- 전국 여대협, 생활안전지원특별법 강화 국회청원/96.8.9 1 702 /110
-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민의 힘으로 해결을"/96.10.5 2 738/195
- 일본군 위안부 시민연대 발족, 과거청산 촉구·기금마련 계획/96.10.19 1 748 /214

18. 인권교육

-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①/96.7.11 2 682/66
-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② -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96.7.12 2 683 /68
- "양심수가 사람이름인가?", 명동에서 확인한 인권의 사각지대/96.8.10 2 703 /113
- 이대 총학생회, 인권·북한경제·환경을 주제로 시사강좌/96.9.10 2 723 /161
-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돼야,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여전/96.10.29 1 754 /226
- 고난함께, 12일부터 5주간 제2회 인권교실 열려/96.11.8 2 762 /246

<기획시리즈>

- 세계의 인권④ 고문/96.7.4 2 677/56

- 세계의 인권㉔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96.8.2 2 697 /101, 102
- 세계의 인권㉕ 세계의 난민/96.9.6 2 721 /155
- 세계의 인권㉖ 땅끝에 선 선주민/96.10.4 2 737 /193
- 세계의 인권㉗ 미래를 짓밟는 아동노동/96.11.29 2 777 /277

19. 인권 · 사회단체

<국제엠네스티 / AI한국지부>

- 한국지부 전국교육대회 가져, 한상범 교수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강의/96.7.11 2 682 /66
- <현장스케치> - 세계인권포스터전, "펜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라"/96.7.20 1 688 /77
- 올해 인권상황 조사위해 AI 조사단 파견/96.8.23 1 711 /128
- AI, 성명서 발표 "한총련 사태 노동운동계 확산 우려"/96.9.6 2 721 /155
- AI 조사단 9월 10-26일 방한/96.9.10 2 723 /161
- 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인터뷰/96.10.1 2 735 /188
- AI 한국방문 결과 논평, "경찰 인권교육 절실"/96.10.8 1 739 /196
- AI, 공안탄압 · 안기부 수사권 확대 반대 고문방지위에 호소/96.11.2 758 /238
- AI,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 "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96.11.7 1 761 /243
- AI 세계인권선언일 성명, 국보법 및 사형제도등 폐지 촉구/96.12.10 2 784 /296
- AI, 김대통령에게 장기수 복송 촉구 서신보내/96.12.12 1 786 /300

<동티모르연대모임>

- 동티모르 독립위한 모임 가을 창립대회/96.7.24 1 690 /81
- 동티모르 산타크루즈 대학살 5주년-국내 동티모르연대모임 발족/96.11.12 1 764 /25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최대통령 구인 통해서라도 진실 밝혀야/96.7.4 1 677 /55
- 검열폐지 지지 성명, '영화법 위헌 당연'/96.10.16 2 745 /209
- 안기부법 개정 철회 촉구/96.11.13 2 765 /253
- 민변,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등 정보공개 요청/96.11.14 1 766 /254
- <자료> 성명서-안기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96.11.14 2 766 /255
- 진관스님 석방 촉구 성명 발표/96.11.27 1 775 /272
- 민변등 성명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96.12.5 2 781 /290
-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96.12.13 1 787 /30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김 이경 죽음 애도 성명/96.8.23 1 711 /128
- '문민독재' 우려하며 공안통치 기도 중단 촉구/96.8.30 2 716 /140
- 전농집회 금지항의 성명/96.9.7 4 722 /159

- 안기부법 개악 중단 정기국회에 촉구/96.9.11 1 724 /162
- 대공수사권 부활 비판,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96.10.26 1 753 /224
-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촉구/96.11.12 2 764 /251
- 과천시장 사건 의혹 수사촉구/96.12.3 1 779 /285
- 노동법 개악반대/96.12.7 2 783 /294
- 5·18재판 결과 납득안가/96.12.17 1 789 /306
- 과천시장 이성환 씨 사건 의혹 규명촉구/96.12.20 1 792 /312
- 임시국회 소집철회 요구/96.12.20 2 792 /31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창립 11주년 기념 목요집회/96.12.13 2 787 /305

<불교인권위원회>

- 불교인권위 진관 승려 원폭피해 행사 참여/96.8.6 1 699 /104
- 불교인권위, 범민족대회 보장촉구/96.8.7 1 700 /106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 양혜우 씨 보석 석방/96.7.9 2 680 /62
- 김해성 목사 재판, 교계원로 석방촉구/96.7.11 2 682 /66
- 김해성 목사 공판 참관기/96.7.12 1 683 /67
- 김해성 목사 등 선고공판, 징역 2년 구형/96.7.25 1 691 /83
- 김해성 목사 징역 8월에 집유 1년 선고/96.7.26 1 692 /85
- 인권운동가 또 구속,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경원 씨/96.10.5 1 738 /194
- 이경원 씨 불구속/96.10.8 2 739 /197

<전국유가협/추모단체>

- '자식의 뜻으로 다시 살고자 나선 가족들', 유가협 창립 10주년 행사/96.8.13 1 704 /114
-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96.9.12 1 725 /164
- 민족민주열사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96.9.17 2 728 /171
- 희생자 · 열사 합동추모, 제7회 추모제 열려/96.9.24 1 733 /180
- <고 장현구군 아버지 장남수 씨> "올 가을엔 아들 묘까지 돌봐야 해"/96.9.24 2 733 /181
- 전국유가협 정기총회, 박정기 씨 회장 선출/96.11.9 2 763 /248
- 달력으로 만나는 민족민주열사, 97년도 민족민주열사 달력 판매/96.11.22 1 772 /266
- 늦봄통일상 추천,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96.11.26 2 774 /27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부패방지법>

- 참여사회아카데미, 국제뉴스분석 강좌 진행/96.8.28 2 714 /135
- 참여사회아카데미 개강/96.8.29 1 715 /136

- 4기 사회복지학교/96.10.2 2 736 /190
- 시민입법 캠페인/96.10.12 2 743 /205
- 부패방지법 가두서명/96.10.23 2 750 /219
- 장애학생 수능시험 편의 요구/96.11.12 2 764 /251
- 공직자 비리 근절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96.11.16 1 768 /258
- 부패방지법 여야면담 제안/96.11.20 1 770/262
-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토론회/96.11.27 2 775 /273
- 양심선언자 범으로 보호해야, 공익정보제공자 보호조례안 발의/96.12.6 2 782 /292
-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사회원로 1백명 성명/96.12.7 2 783 /294

<천주교인권위원회>

- 인권탄압 저지, 천주교 대책위 18일 발족/96.7.19 1 687 /75
- 「평화만들기 1」 콘서트/96.9.19 1 730 /174
- 박노해 문화제 열려/96.10.4 1 737 /192
-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재선임/96.10.5 1 738 /194
- 양심수와 함께하는 천주교 인권주일/96.12.7 1 783/293
- 천주교인권위 양심수 석방서명 2만명 넘어/96.12.14 2 788 /305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인권탄압 저지, 천주교 대책위 18일 발족/96.7.19 1 687 /75
- “정권안위에만 부심”, 시국성명/96.9.3 1 718 /147
- 사제 구타사건 강력 항의/96.10.25 1 752 /222
- 노동법 개정안 비판/96.12.6 1 782 /291
- 안기부법 개악반대/96.12.13 1 787 /30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한국교회 인권센터>

- 인권센터 정책간담회, 한국인권운동의 방향/96.7.26 1 692 /85
- 시국성명, “김정권 보수회귀 우려”/96.9.7 1 722 /156
- 11월 한달간 외국인노동자 선교실무자 교육/96.10.29 2 754/227
- 제10회 인권상 후보 추천/96.10.30 2 755 /229
- 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96.11.5 2 759 /240
- 교회협 인권주간 선포/96.12.7 1 783 /293
- KNCC 10회 인권상에 고 나카지마 목사 수상/96.12.13 1 787 /302

<한국여성단체연합>

- 여연,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건의문 발송/96.8.30 2 716 /140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우트로교민 주거권 인권하라”, 인권협 항의서한 일본대사관에 전달/96.7.26 2 692 /86
- 시위대 발포 관련,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96.8.3 1 698 /102
- 노벨평화상 계기로 한국정부 동티모르에 관심올!-인권협 촉구/96.10.16 1 745 /208

20. 인권일반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원폭피해자 대책촉구/96.8.8 2 701 /109
-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한 현준희 씨 1차공판/96.8.14 2 705 /117
- 민족회의 8·15 기념행사, 96평화통일선언 채택/96.8.16 2 706 /119
-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96.8.28 1 714 /134
- 인종차별철폐위원회/96.8.28 2 714 /135
- 대학생 인권운동 출발, 인권연대 창립총회/96.10.2 1 736 /189
-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중-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없다”/96.10.23 1 750 /218
- 국민인권기구란?/96.10.23 1 750 /218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에 보고된 정부 ‘제8차 정기보고서’(국감자료)/96.10.26 1 753 /224
- 전세계 8억 이상의 사람들 영양실조 상태/96.11.20 2 770 /263
- <자료요약> 휴먼라이츠워치 1997년 한국보고서 ①/96.12.21 2 793 /315
- <자료요약> 휴먼라이츠워치 1997년 한국보고서 ②/96.12.26 2 795 /319
- <자료> 행려자 인권선언서 “늙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인간선언”/96.12.27 2 796 /320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 10대 뉴스/96.12.27 3 796 /321~323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침해자, 인권옹호자/96.12.27 3 796 /323

<제1회 인권영화제>

-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초 개최/96.9.3 1 718 /147
-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제1회 인권영화제 개막/96.10.12 1 743 /204
- 작품소개① <도둑맞은 아이들>/96.10.19 2 748 /215
- 작품소개② <망각에 반대하며> <불굴> <유령을 부르며>/96.10.23 2 750 /219
- 작품소개③ <숨겨진 이미지> <어느 관료의 죽음> <우리는 왜 노래하지 않는가>/96.10.25 2 752 /223
- 제1회 인권영화제 상영시간표/96.10.26 2 753 /225
- 작품소개④-<플로코네편지아 이야기>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 <평화의 가장자리에 서>/96.10.30 2 755 /229
- 작품소개⑤ <하비 밀크의 시대> <미국의 꿈> <이방의 여인들>/96.11.1 2 757 /236
- 치졸한 정부, 인권영화제 방해공작-이화여대, 정부 압력에 곤혹/96.11.5 1 759 /239
- 작품소개⑥ <이발>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 <수단-상처입은 나라>/96.11.6 2 760 /242
- 진보정치연합 성명, “인권영화제 보장하라”/96.11.7 1 761 /243
- 작품소개⑦ <암살학교> <지하의 민중>/96.11.8 2 762 /246
- <인터뷰>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관객들이 사전심의 철폐운동 지지해줄 것”/96.11.9 1 763 /247
- 제1회 인권영화제 폐막...16개 도시 순회상영/96.11.9 2 763/248

- <영화 감상문> '지하의 민중'을 보고/96.11.20 2 770 /263
- 장소 불허, 방송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96.11.28 1 776 /274
- 전주 인권영화제 암흑속 진행, 전북대측 전기차단·교직원 1백명 동원/96.12.3 2 779 /286

<인권활동가>

-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①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양혜우 사무국장/96.9.7 2 722/157
-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② '푸른영상' 김태일씨/96.9.19 2 730 /175
- <독자투고>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길(김홍겸)-박정석(전 전국빈민연합 간사)/96.10.11 2 742 /203
-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③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정유진 간사/96.10.18 2 747 /213
-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④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부장/96.11.21 2 771 /265

21. 장애인

-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적어"/96.7.5 2 678 /58
- '장애인 먼저' 보다 '장애인 소외' 우려, 4월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 발족/96.7.26 1 692 /85
- 『이동약자 위한 기본법』 토론회/96.8.8 2 701 /109
- 루즈벨트상 수상 낮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정책 후퇴/96.9.17 1 728 /170
-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이덕인·최정환·백원옥 씨등/96.9.17 1 728 /170
- 장애인상 수상철회 요구, "장애인, 외교적 희생물"/96.9.18 2 729 /173
-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논의/96.9.21 1 732 /178
- <자료>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96.9.21 2 732 /179
- 참여연대, 장애인 학생 수능시험 편의 요구/96.11.12 2 764 /251
- 장애인 비하 발언 김현철 씨 사과하라/96.11.23 2 773 /269
-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96.11.28 2 776 /275
- <자료> 장애우연구소 심포지엄, 김영삼정부 장애인복지정책 평가/96.12.11 2 785 /299
- 김성재 교수 장대협 의장에 취임/96.12.20 2 792 /313

22. 정보통신

- 정보통신 주권 수호, PCS 국정조사 촉구/96.7.26 2 692 /86
- 국무회의, 정보공개법 공개대상 대폭 축소/96.8.16 2 706 /119
-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96.8.24 1 712 /130
- 인터뷰: 통신연대 김영식 대표 "사용자 자체정화기능 믿어야"/96.9.5 2 720 /153
-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인터넷서 벌이는 검열반대운동/96.10.2 1 736 /189
- 시민연대,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96.11.21 1 771 /264

<윤석진 씨 사건>

-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안돼!, 한총련 발미 기본권 통제 제한선 실종/96.11.2 1 758 /237
- 그들이 무장간첩일까?-PC통신 천리안 '희망터'에 게재한 윤석진 씨 글/96.11.2 2 758 /238
- 윤석진 씨 징역 1년6월 구형, PC통신 무장공비글 게재/96.12.20 1 792 /312

23. 주거·도시빈민

- 세계주거회의 보고대회, 국가행동계획에 민간참여 보장해야/96.7.10 2 681 /64
- 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서초구 반포2동 53세대 생존권 위협/96.9.4 1 719 /150
-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96.9.18 1 729 /172
- <동선이네 추석이이야기> "철거반원 들어올까봐 무서워요"/96.9.20 2 731 /177
-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하라" 방배4동 철거, 주민 8개월째 대항/96.10.23 2 750 /219
- 부산 송당마을 강제철거 중 철거강제 흥기에 맞아 주민 중태/96.10.29 2 754/227
- 미야7동 생가 철거, 주민등 76명 전원연행/96.11.1 1 757 /235
- 서초서, 단속 항의한 노점상에 공포탄 발사, 열흘간 노점상 7명 구속/96.11.12 2 764 /251
- 잠옷바람으로 새벽 찬거리 내몰려-현저동, 상계동 등 동계철거 계속/96.11.23 2 773 /269

24. 집회·시위의 자유

-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패썬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96.7.16 2 685 /72
- 경찰측 "신고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96.7.19 1 687 /75
- '시위용품 신고규정없다'며 민변·민가협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서한/96.8.10 2 703 /113
-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제기 보수회귀 역력/96.8.23 1 711 /128
- 이젠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96.9.11 1 724 /162
- 당정, 집회강제해산 법제화 기도-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96.10.25 1 752 /222
-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안돼!, 한총련 발미 기본권 통제 제한선 실종/96.11.2 1 758 /237

25. 표현·창작의 자유

- 독립영화 거리 상영, 매주 토요일 명동성당/96.7.12 1 683 /67
- 영상악법 및 검열 철폐 전자서명운동 전개/96.10.10 1 741 /200
- <자료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96.10.10 2 741 /201
-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영화법 위헌 당연'/96.10.16 2 745 /209
-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96.12.4 2 780 /288
- 모든 매체물 심의·규제, 청소년보호법 인권침해 우려/96.12.17 2 789 /307

<공연>

- 박노해 문화제 열려/96.10.4 1 737 /192
- 고려대, 문화제 행사 '희망' 불허/96.10.19 1 748 /214
- 안하무인 공권력, 고개 숙인 대학-청년 문화행사 번번이 원천봉쇄/96.10.22 1 749 /216
- 6월항쟁 10주년 기념공연 <96 당당하게>/96.10.24 2 751 /221

· 사람 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96.11.5 2 759 /240

<통신의 자유>→<정보통신>

26. 행형

- <투고> 전두환씨의 사형선고를 반대하며, 오완호(AI한국지부사무국장)/96.8.23 2 711/129
- <한 특수강도 전과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96.11.15 2 767 /257
-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96.11.15 2 767 /257
- 이병설씨 지난 10월 중순 작고, 간경화 앓아오다 옥중에서 간암 발병/96.11.23 2 773 /269
-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 위기/96.11.27 2 775 /273
-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절실/96.11.27 2 775 /273

27. 환경

<영광핵반대운동>

- 핵발전소 반대투쟁, 광주 사회단체 집결/96.7.26 2 692 /86
- 핵발전소 건설반대자 실행선고에 대해 독일 환경단체 석방 촉구/96.7.30 1 694 /89
- 한전, 영광핵발전소 2호기 방사능 방출 한달만에 발표/96.8.8 2 701 /109
- 영광 핵발전소 반대 시위 박재완 신부 등 항소심/96.9.11 1 724 /162
- 노골화되는 경찰폭력-경찰, 영광분당 신부 구타연행/96.10.22 2 749 /217
- 천주교 전국사제단, 사제 구타사건 강력 항의/96.10.25 1 752 /222
- 광주교법,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했으나 박재완 신부등에 집유/96.12.12 1 786 /300

28. 기타

· 창간 3주년 축하·격려 글모음-<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96.9.7 3,4 722 /158,159

<전자주민카드>

- 전자주민카드, 프라이버시 침해·정부통제 강화 우려, 저지 운동 뜬다/96.10.10 1 741/200
- “21세기형 통제 반대”, 전자주민카드 철회 운동/96.10.22 2 749 /217
- 전자주민카드 철회!, 시민·사회단체 토론회/96.11.1 2 757 /236
- <자료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대위의 비판/96.11.6 2 760 /242
- <자료요약>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김주환(미국 펜실버니아 대학 박사과정)/96.11.7 2 761 /244
- 새 신분 확인제 필요-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96.11.21 1 771 /264

<월별 총목차>

· 7월 총목차(675-695호)/96.7.31 2,3 695 /92,93

- 8월 총목차(696호-717호)/96.8.31 2,3 717 /142,143
- 9월 총목차(718호-734호)/96.9.25 2,3 734 /183,184
- 10월 총목차(735-756호)/96.10.31 2,3 756 /231,232
- 11월 총목차(757호-778호)/96.11.30 3,4 778 /280,281

<인권간행물>

-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96.8.3 2 698 /103
- 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간/96.9.17 2 728 /171
- 「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96.10.24 2 751 /221

<주간인권호름>

- 주간인권호름(6월24일- 30일)/96.7.2 2 675 /52
- 주간인권호름(7월1일- 7일)/96.7.9 2 680 /62
- 주간인권호름(7월9일- 14일)/96.7.16 2 685 /72
- 주간인권호름(7월16일- 21일)/96.7.23 2 689 /80
- 주간인권호름(7월22일- 28일)/96.7.30 2 694 /90
- 주간인권호름(7월29일- 8월4일)/96.8.6 2 699 /105
- 주간인권호름(8월5일- 11일)/96.8.13 2 704 /115
- 주간인권호름(8월12일- 18일)/96.8.20 2 708 /123
- 주간인권호름(8월19일- 25일)/96.8.27 2 713 /133
- 주간인권호름(8월26일- 9월1일)/96.9.3 2 718 /148
- 주간인권호름(9월2일- 8일)/96.9.10 2 723 /161
- 주간인권호름(9월9일- 13일)/96.9.17 2 728 /171
- 주간인권호름(9월16일- 23일)/96.9.24 2 733 /181
- 주간인권호름(9월23일- 29일)/96.10.1 2 735 /188
- 주간인권호름(9월30일- 10월6일)/96.10.8 2 739 /197
- 주간인권호름(10월7일- 11일)/96.10.15 2 744 /207
- 주간인권호름(10월14일- 20일)/96.10.22 2 749 /217
- 주간인권호름(10월21일- 27일)/96.10.29 2 754 /227
- 주간인권호름(10월28일- 11월3일)/96.11.5 2 759 /240
- 주간인권호름(11월4일- 10일)/96.11.12 2 764 /251
- 주간인권호름(11월11일- 17일)/96.11.19 2 769 /261
- 주간인권호름(11월18일- 24일)/96.11.26 2 774 /271
- 주간인권호름(11월25일- 12월1일)/96.12.3 2 779 /286
- 주간인권호름(12월2일- 8일)/96.12.10 2 784 /296
- 주간인권호름(12월9일- 15일)/96.12.17 2 789 /307
- 주간인권호름(12월16일- 22일)/96.12.24 2 794 /317

<인권하루소식> 합본 VII

펴낸날 · 97년 3월
펴낸이 · 서준식
펴낸곳 · 인권운동사랑방

주소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5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인터넷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값 1만 원